

보도자료

본 자료는 12월 3일(목) 조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동향분석실장 강두용(거시)

(02) 3299-3205

성장동력산업실장 장석인(산업)

(02) 3299-3249

2010년 경제·산업전망

2009. 12

산 업 연 구 원

< 목 차 >

요약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1
2. 대외여건 전망	6
3. 2010년 국내경제 전망	14
II. 2010년 산업전망	28
1. 2009년 동향	28
2. 2010년 전망	31
3. 주요 업종별 2010년 전망	44

< 요약 >

I.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빠른 회복세이나 일시적 요인의 기여 큰 편

○ 국내경기는 2009년 2분기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추이

- 자산가격 회복,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는 6월 이후 증가세
- 실물지표의 회복세 확산 추이, 선행 지표 움직임 등은 회복국면 지속 시사

○ 다만 최근의 빠른 회복세에는 급락 이후의 반등효과, 경기부양책 및 환율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회복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상반기에는 정부소비와 공공건설투자, 중반 이후에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구재 소비증가가 큰 역할
- 수출의 상대적 호조 및 최근 회복세에도 환율 효과와 중국 등 주요수출시장의 경기부양 효과의 기여가 큰 편
- 국내외 불안요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경계 필요

□ 세계경제 : 완만한 회복세 전망

○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의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경기 회복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

- 세계 주요국의 실물경기는 2009년 하반기 들어 각종 지표상으로

완전한 회복 국면의 진입을 시사

- 선진국 경제는 2010년중 약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반면, 개도국 경제는 빠른 성장세 회복 전망
- 세계 교역은 선진국 부채조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영향으로 제한적인 회복 예상

□ 국제유가 및 환율 : 유가는 최근 수준에서 변동, 환율은 하락기조 지속

-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침체 하에서도 미 달러화 약세 등 금융요인에 의해 최근 들어 예상보다 빠른 오름세
-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아직까지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유가 대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라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나 글로벌 달러 약세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는 하락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2010년 경제성장 : 경기회복,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4.8% 성장

- 회복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속도는 최근보다 둔화되겠으나 전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2010년 GDP는 4.8%의 성장을 전망
- 전년 기저효과로 상하반기 격차가 큰 상고하저 성장패턴(전년동기비)을 보일 전망
-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제 회복속도나 체감 회복추이는 훨씬 완만할

전망

- 2009년 상반기 부진의 기저효과가 배제된 2010년 하반기 성장률(3.3%)이 체감 회복속도에 좀 더 근접할 것
- 출구전략이나 부양효과 감소에 따른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 달러 약세 급진전시 유가 및 환율 급변동 가능성 등이 주요 불안요인(downside risk)
 -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 주요산업의 재고 rebuilding 속도는 내년 성장률을 상당폭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upside risk)
- 중기적으로 이번 경기회복은 과거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교역의 침체 폭이 깊고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환경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완만할 전망
- **민간소비 : 부양효과 감소, 고용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GDP보다 낮은 증가 전망**
 - 2010년 민간소비는 경기부양 효과의 감소(특히 '09년 소비증가에 큰 역할을 한 노후차 교체지원 정책효과 소멸), 고용 부진, 교역조건 악화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4.2% 내외의 증가를 예상
- **설비투자 : 소비 및 수출회복, 전년 침체의 반등 효과로 두자릿수 증가**
 - 소비와 수출의 회복, 전년도 급감의 반등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
 -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전망

□ 수출입: 수출증가율 12.8%, 무역수지 236억 달러 흑자 전망

○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입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

-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수출은 13%내외의 증가율을 달성할 전망
- 수입은 내수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외에 2009년 부진의 기저효과 등으로 20% 가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흑자규모는 '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240억 달러 내외의 무역흑자 전망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전기대비)	-3.2 (1.4)	3.4 (2.0)	0.1 —	6.4 (0.7)	3.3 (0.9)	4.8 —
민간소비	-2.6	3.3	0.3	5.5	3.0	4.2
건설투자	2.8	4.0	3.4	2.2	2.9	2.5
설비투자	-19.5	0.5	-9.8	19.3	9.7	14.1
통관기준 수출 (%)	1,653 (-22.8)	1,987 (-4.5)	3,639 (-13.8)	1,935 (17.1)	2,170 (9.2)	4,105 (12.8)
통관기준 수입 (%)	1,451 (-34.3)	1,786 (-16.7)	3,236 (-25.6)	1,820 (25.4)	2,049 (14.8)	3,869 (19.6)
무역수지	202	201	403	115	121	236

주 : 1) 전기대비 성장률은 분기GDP의 전기비 성장률 평균
2)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입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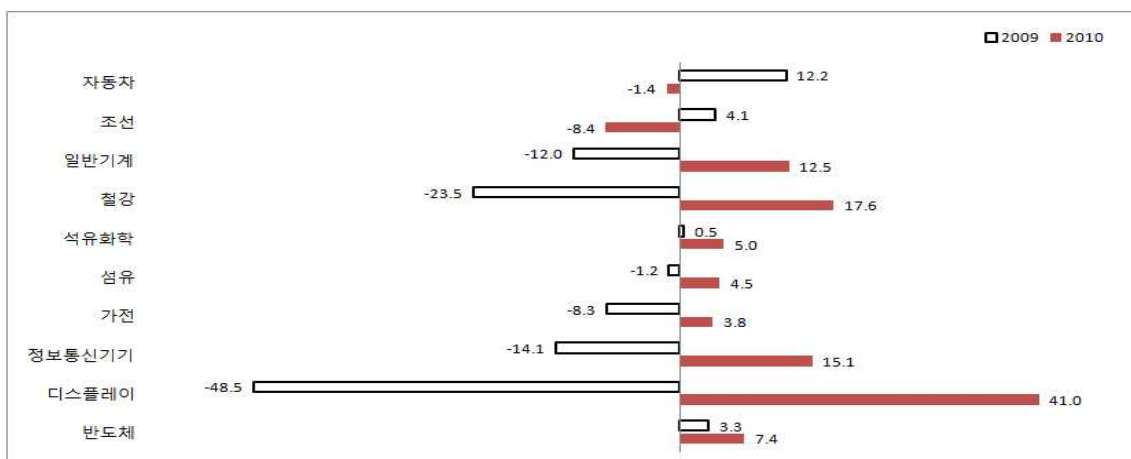
II. 산업별 전망

□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증가를 주도할 전망

- IT산업군은 원도 7 출시에 따른 PC 교체 수요, 남아공 월드컵 특수, 스마트폰 시장 확대, LED와 태양전지 수요 증가로 여타 산업군보다 내수 증가율이 높을 전망이다.
 - 특히 디스플레이는 전년대비 기저효과와 전방산업 호조로 41%의 매우 높은 증가율 기대
- 비IT산업에서는 건설 및 설비투자 회복에 따른 일반기계와 철강 내수가 10%이상 증가하고 섬유와 석유화학은 완만히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전망이다.
 - 자동차는 노후차 세제감면책 종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1.4% 감소할 전망

<그림 1> 2010년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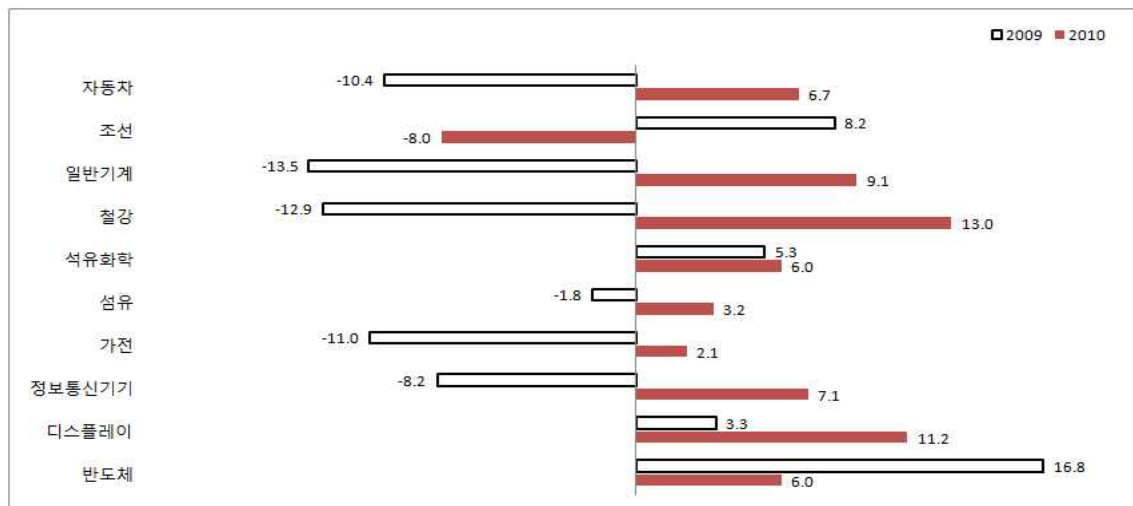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생산은 높은 증가세 전망

- 전년 대비 기저효과와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의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는 11.2%,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는 6~7%대로 높은 전망이나, 가전은 개별소비세 부과로 대형 가전 매출 둔화가 예상되어 2.1% 증가에 그칠 전망
- 비IT산업에서는 설비투자 확대와 수출 호조가 기대되는 일반기계, 철강, 자동차가 높은 증가세인 반면, 조선은 감소할 전망이다.
- 2009년 8.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조선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선사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인도 연기로 8.0% 감소할 전망

<그림 2> 2010년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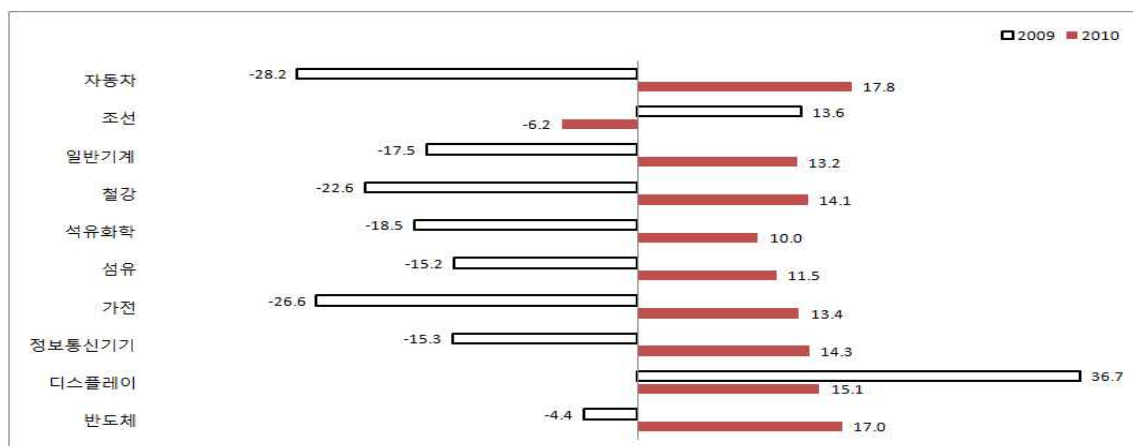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0.8% 증가로 2008년 수준에 근접 예상

- 수출은 원화절상 기조가 제약요인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 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월드컵 특수, 윈도 7 출시 등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으로 15.2% 증가하는 IT산업군이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반도체 17.0%, 디스플레이 15.1%, 정보통신기기 14.3%, 가전 13.4%로 고른 증가세 전망
- 비IT산업에서는 건조물량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만 수출이 감소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세계수요 회복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은 13~18%, 섬유와 석유화학은 10~11%
- 총수출에서 10%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조선,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로서 4개 산업의 합계는 41%에 이를 전망이다.

<그림 3>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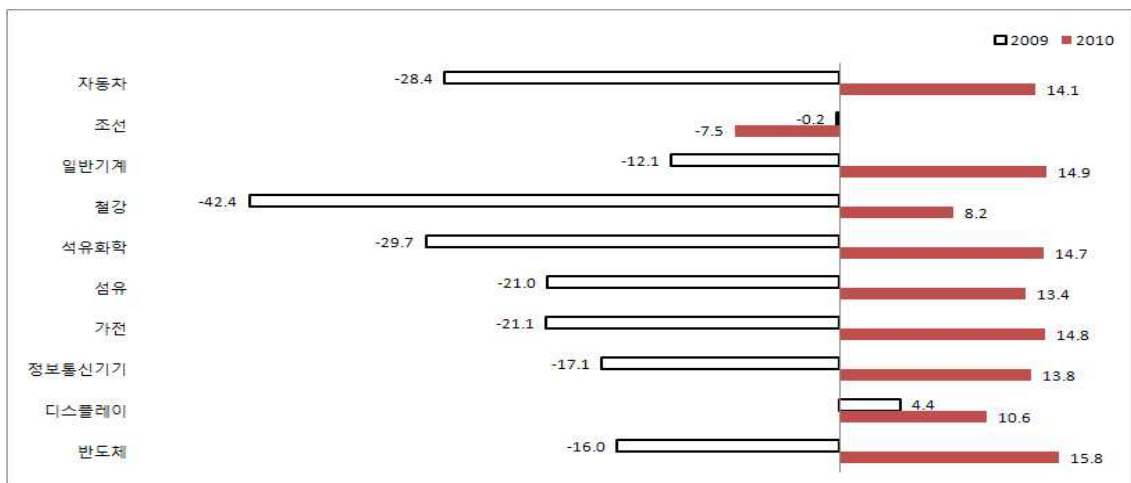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 전망

-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IT산업군은 높은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용 부품 수입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14.8% 증가할 전망이다.
- 기계산업군은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설비 도입으로 11.0% 증가하고, 소재산업군은 역수입 증가 속에서 국내 공급기반 확대 등으로 여타 산업군보다 낮은 10.6% 증가할 전망이다.
- 반면, 조선은 국내 건조량의 감소로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7.6% 감소할 전망

<그림 4>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표 2> 2010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표 3> 2010년 주요 업종별 생산 전망

단위 :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3,827 (-6.4)	1,530 (-24.0)	1,900 (8.6)	3,430 (-10.4)	1,638 (7.1)	2,021 (6.4)	3,659 (6.7)
조선 (만CGT)	1,451 (29.6)	790 (15.0)	780 (2.1)	1,570 (8.2)	733 (-7.2)	712 (-8.7)	1,445 (-8.0)
일반기계 (10억원)	70,950 (4.5)	27,780 (-19.5)	33,567 (-7.9)	61,347 (-13.5)	30,590 (10.1)	36,355 (8.3)	66,945 (9.1)
철강 (천톤)	64,564 (6.6)	25,440 (-24.6)	30,767 (-0.2)	56,207 (-12.9)	31,302 (23.0)	32,217 (4.7)	63,519 (13.0)
석유화학 (천톤)	19,389 (3.7)	10,408 (5.2)	10,017 (5.5)	20,425 (5.3)	11,137 (7.0)	10,518 (5.0)	21,655 (6.0)
섬유 (천톤)	1,870 (-6.8)	899 (-5.0)	938 (1.2)	1,837 (-1.8)	952 (5.9)	944 (0.6)	1,896 (3.2)
가전 (10억원)	31,625 (0.8)	14,720 (-11.1)	13,440 (-10.8)	28,160 (-11.0)	15,040 (2.2)	13,700 (1.9)	28,740 (2.1)
정보통신기기 (10억원)	76,020 (13.7)	33,584 (-10.0)	36,219 (-6.4)	69,803 (-8.2)	35,735 (6.4)	39,055 (7.8)	74,790 (7.1)
디스플레이 (10억원)	36,400 (20.2)	16,925 (-9.2)	20,693 (16.5)	37,618 (3.3)	18,204 (7.6)	23,645 (14.3)	41,849 (11.2)
반도체 (10억원)	35,421 (-9.6)	16,120 (-9.7)	25,260 (33.8)	41,380 (16.8)	17,640 (9.4)	26,230 (3.4)	43,870 (6.0)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4> 2010년 주요 업종별 내수 전망

단위 :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1,239 (-4.1)	654 (-1.3)	736 (27.6)	1,390 (12.2)	655 (0.1)	715 (-2.9)	1,370 (-1.4)
조선 (만CGT)	97 (24.3)	53 (10.5)	48 (2.1)	101 (4.1)	49 (-7.5)	44 (-9.4)	93 (-8.4)
일반기계 (10억원)	64,341 (0.5)	26,474 (-13.2)	30,178 (-10.8)	56,652 (-12.0)	30,412 (14.9)	33,340 (10.5)	63,752 (12.5)
철강 (천톤)	58,774 (9.3)	19,992 (-35.2)	24,950 (-10.6)	44,942 (-23.5)	25,971 (29.9)	26,873 (7.7)	52,843 (17.6)
석유화학 (천톤)	9,271 (-2.6)	4,635 (-4.4)	4,681 (5.8)	9,316 (0.5)	4,890 (5.5)	4,892 (4.5)	9,782 (5.0)
섬유 (천톤)	1,466 (-5.3)	696 (-4.8)	752 (2.0)	1,448 (-1.2)	756 (8.6)	757 (0.7)	1,513 (4.5)
가전 (10억원)	22,862 (-1.1)	10,914 (-9.8)	10,042 (-6.7)	20,956 (-8.3)	11,322 (3.7)	10,437 (3.9)	21,759 (3.8)
정보통신기기 (10억원)	42,114 (6.3)	16,466 (-17.6)	19,692 (-11.1)	36,158 (-14.1)	19,421 (17.9)	22,206 (12.8)	41,627 (15.1)
디스플레이 (10억원)	19,715 (14.2)	4,842 (-56.5)	5,313 (-38.5)	10,155 (-48.5)	6,715 (38.7)	7,599 (43.0)	14,314 (41.0)
반도체 (10억원)	34,566 (9.5)	16,330 (-3.9)	19,365 (10.2)	35,695 (3.3)	16,935 (3.7)	21,415 (10.6)	38,350 (7.4)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5>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48,982 (-1.5)	15,380 (-42.4)	19,797 (-11.2)	35,177 (-28.2)	17,838 (16.0)	23,607 (19.2)	41,445 (17.8)
조선	43,157 (55.4)	24,638 (30.4)	24,388 (0.5)	49,026 (13.6)	23,667 (-3.9)	22,327 (-8.4)	45,994 (-6.2)
일반기계	29,462 (16.1)	10,814 (-30.3)	13,492 (-3.3)	24,306 (-17.5)	12,480 (15.4)	15,044 (11.5)	27,524 (13.2)
철강	29,865 (29.7)	11,383 (-19.1)	11,741 (-25.7)	23,124 (-22.6)	12,807 (12.5)	13,571 (15.6)	26,378 (14.1)
석유화학	32,124 (11.4)	12,209 (-27.8)	13,971 (-8.2)	26,180 (-18.5)	13,857 (13.5)	14,943 (7.0)	28,800 (10.0)
섬유	13,317 (-1.0)	5,447 (-19.3)	5,844 (-11.0)	11,291 (-15.2)	6,115 (12.3)	6,474 (10.8)	12,589 (11.5)
가전	12,896 (-4.0)	4,650 (-34.6)	4,810 (-16.8)	9,460 (-26.6)	5,480 (17.8)	5,250 (9.1)	10,730 (13.4)
정보통신기기	45,737 (5.2)	18,503 (-21.4)	20,254 (-8.8)	38,757 (-15.3)	21,018 (13.6)	23,281 (14.9)	44,299 (14.3)
디스플레이	18,397 (10.0)	10,460 (12.7)	14,684 (61.0)	25,144 (36.7)	11,822 (13.0)	17,116 (16.6)	28,938 (15.1)
반도체	32,793 (-16.0)	11,875 (-32.4)	19,475 (27.9)	31,350 (-4.4)	15,560 (31.0)	21,120 (8.4)	36,680 (17.0)
10대 업종 합계	306,730 (9.2)	125,359 (-19.8)	148,456 (-1.3)	273,815 (-10.7)	140,644 (12.2)	162,733 (9.6)	303,377 (10.8)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표 6>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7,645 (6.7)	2,364 (-43.6)	3,113 (-9.8)	5,477 (-28.4)	2,921 (23.6)	3,329 (6.9)	6,250 (14.1)
조선	5,327 (69.2)	2,365 (-2.6)	2,855 (-1.6)	5,220 (-0.2)	2,228 (-5.8)	2,598 (-9.0)	4,826 (-7.6)
일반기계	23,470 (10.6)	9,792 (-17.6)	10,840 (-6.4)	20,632 (-12.1)	11,408 (16.5)	12,303 (13.5)	23,711 (14.9)
철강	41,411 (51.1)	11,002 (-44.0)	12,851 (-41.0)	23,853 (-42.4)	12,874 (17.0)	12,942 (0.7)	25,816 (8.2)
석유화학	12,319 (6.0)	3,898 (-40.6)	4,762 (-17.3)	8,660 (-29.7)	4,600 (18.0)	5,333 (12.0)	9,933 (14.7)
섬유	8,800 (-1.2)	3,162 (-27.5)	3,804 (-14.3)	6,956 (-21.0)	3,607 (14.1)	4,283 (12.6)	7,890 (13.4)
가전	4,848 (6.6)	1,833 (-29.7)	1,990 (-11.2)	3,823 (-21.1)	2,190 (19.5)	2,200 (10.6)	4,390 (14.8)
정보통신기기	14,997 (6.2)	5,832 (-25.4)	6,598 (-8.1)	12,430 (-17.1)	6,581 (12.8)	7,570 (14.7)	14,151 (13.8)
디스플레이	3,270 (22.2)	1,516 (-8.9)	1,897 (18.0)	3,413 (4.4)	1,655 (9.2)	2,120 (11.8)	3,775 (10.6)
반도체	32,018 (3.9)	12,039 (-28.2)	14,862 (-2.5)	26,901 (-16.0)	14,410 (19.7)	16,740 (12.6)	31,150 (15.8)
10대 업종 합계	154,105 (17.1)	53,803 (-31.0)	63,572 (-16.6)	117,365 (-23.8)	62,474 (16.1)	69,418 (9.2)	131,892 (12.4)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I.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경기상황 판단

□ 2009년 2분기 이후 빠른 회복 추이

-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한 침체를 보였던 국내경기는 올해 2분기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로 돌아서는 모습

* GDP (전년동기대비, %) ('08.4/4) -3.4 → ('09.1/4) -4.2 → (2/4) -2.2 → (3/4) 0.6

(전기대비, %) ('08.4/4) -5.1 → ('09.1/4) 0.1 → (2/4) 2.6 → (3/4) 2.9

-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전년동기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기비로는 연초 이후 회복세

* 통관수출(%) ('09.1/4) -25.2 → (2/4) -20.5 → (3/4) -16.6 → (10월) -8.5

* 통관수입(%) ('09.1/4) -32.7 → (2/4) -36.1 → (3/4) -31.3 → (10월) -16.3

- 내수는 올해 1분기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경기부양, 자산가격 회복, 교역조건 호전으로 2분기 이후 회복되는 추이

* 민간소비 (%) ('08.4/4) -3.7 → ('09.1/4) -4.4 → (2/4) -0.8 → (3/4) 0.6

내수 소비재 출하(%) ('09.1/4) -9.7 → (2/4) -2.2 → (3/4) 4.3 → (10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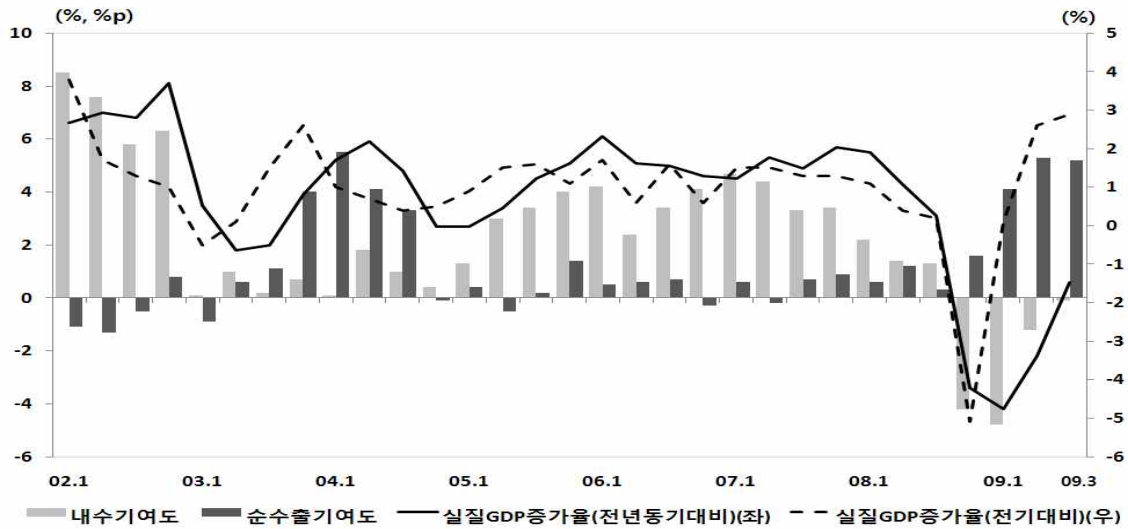
* 설비투자 (%) ('08.4/4) -14.0 → ('09.1/4) -23.5 → (2/4) -15.9 → (3/4) -8.7

설비투자 추계(%) ('09.1/4) -17.7 → (2/4) -13.4 → (3/4) -10.1 → (10월) 0.3

-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기의 급변동은 기업의 급격한 재고 변화가 크게 영향 : 위기발발후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GDP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3분기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재고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전기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로 작용

*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 (전기비, %p) ('08.4/4) -3.0 → ('09.1/4) -3.3 → (2/4) -2.1 → (3/4) 2.9

<그림 1-1> GDP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수요회복을 반영하여 산업생산 지표들도 연초부터 전기비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3분기 들어서는 전년동기비로도 증가세 전환되며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 산업생산 (%) ('09.1/4) -15.5 → (2/4) -6.2 → (3/4) 7.1 → (10월) 0.2

* 서비스생산 (%) ('09.1/4) -0.4 → (2/4) 1.6 → (3/4) 0.8 → (10월) 1.5

-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도도 경기회복국면으로의 전환을 시사

- 선행지표, 심리지표 등도 회복세 지속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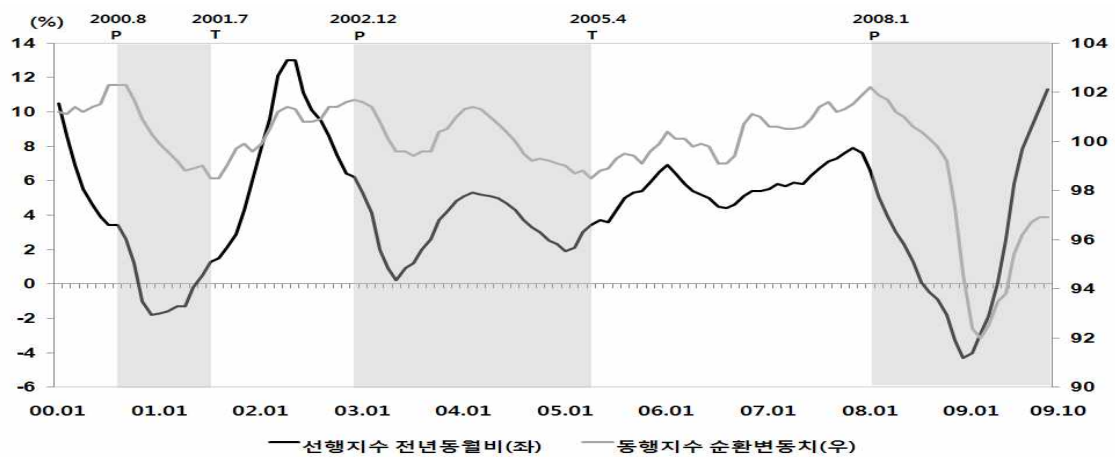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전년동월비)는 4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중이고, 기업설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 심리지표도 상승세

* 선행지수 전년동기비(%) ('09.1/4) -3.5 → (2/4) 2.6 → (3/4) 8.6 → (10월)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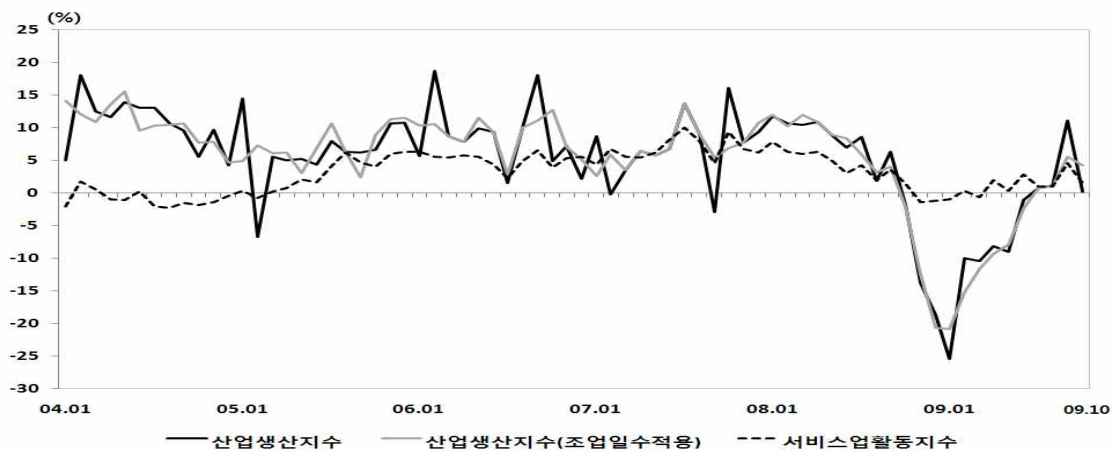
- 각각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와 건설수주는 3분기 이후 증가세를 시현

* 국내기계수주 증가율(%) : ('08.4/4) -47.3 → ('09.1/4) -33.8 → (2/4) -14.1 → (3/4) 6.5 → (10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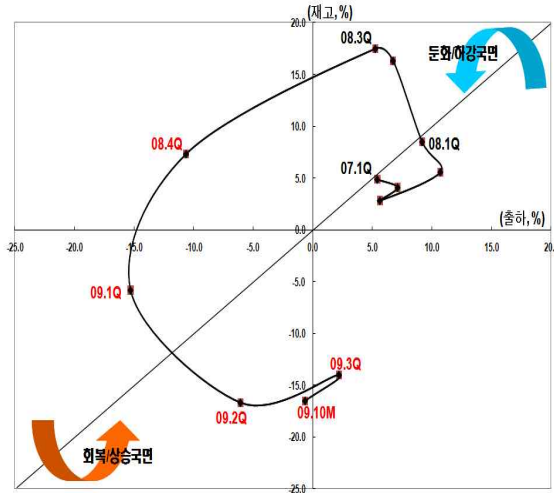
<그림 1-2> 경기종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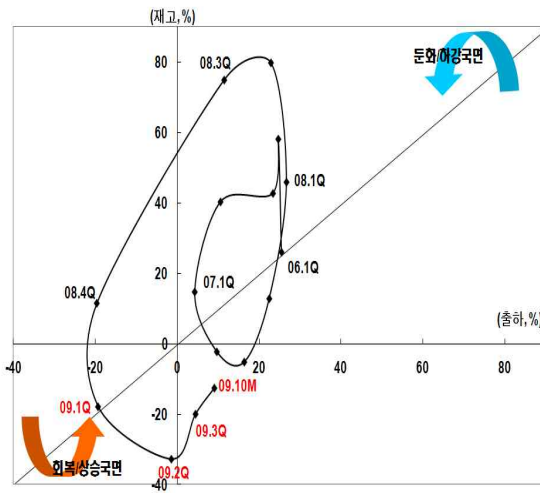
<그림 1-3> 산업생산지수와 서비스업활동지수 증가율 추이



<그림 I -4> 제조업 재고-출하순환 <그림 I -5> 제조업ICT 재고-출하순환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 빠른 회복세에는 부양책, 환율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의 기여도 큰 편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 자산가격 회복 등에 힘입어 실물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다만 국내외 경기의 회복추이에는 아직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고, 특히 최근 국내경기의 빠른 회복추이에는 경기부양, 고환율 등 일시적 요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
- 예컨대 3분기 민간소비 증가(전년동기비 0.6%)에는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에 따른 자동차 내수판매 급증의 기여가 컸던 것으로 추정
 - 정책 시행 이후 자동차 내수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에는 약 31%의 급증세를 보여 동기간 민간소비증가에 1%p 이상 기여한 것으로 추정 (<표 I-1> 참조)
- 또한 위기 이후 한국 수출의 경쟁국 대비 상대적 호조나 최근의 빠른 회복세는 환율 요인이나 주요국의 경기부양 등이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

- 교역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시, 위기 이후 한국 수출의 상대적 호조는 환율 급등에 따른 상대가격 하락과 채산성 효과(채산성 호조에 힘입어 공격적 마케팅)가 크게 기여하였을 가능성
- 상대가격 요인과 경기변동 요인 (침체기에 고급재인 일본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부진)이 금융위기 이후 한국 수출의 상대적 호조의 약 70%를 설명

<표 1-1>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비, %)

2002년~2008년	2009년				
연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1~4월 (교체지원 시행이전)	5~10월 (교체지원 시행이후)
-5.5	-14.9	14.2	30.7	-14.9	29.1

자료 : 자동차공업협회

<표 1-2> 위기 이후 한일 수출 실적 비교

	수출 금액 (달러 기준)		실질 수출		수출 가격 (달러 기준)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09년(1~7월) 평균증감율(%)	-22.7	-35.8	-2.5	-33.1	-20.2	-2.7
위기 이전(08년 1~10월 평균) 대비 변화폭(%p)	-43.8	-51.8	-15.9	-41.4	-27.9	-10.4

자료 : 무역협회, 한국은행, 일본은행 통계로부터 작성

- 한편 최근의 수출회복에서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내수부양 효과가 적지 않게 기여
 - 10월 수출의 감소폭 완화(-8.5%)에는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 호조(9.7% 증가)가 크게 기여
 - 중국은 주요국중 GDP 대비 경기부양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서, 최근 주요업종의 대중 수출호조(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는 중국의 경기부양 효과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추정
- 대부분의 지표 추이에 비추어 경기회복세는 지속되겠으나, 급락후 반등효과나 위와 같은 일시적 요인들의 효과가 점차 소멸 내지 축소되면서 향후 회복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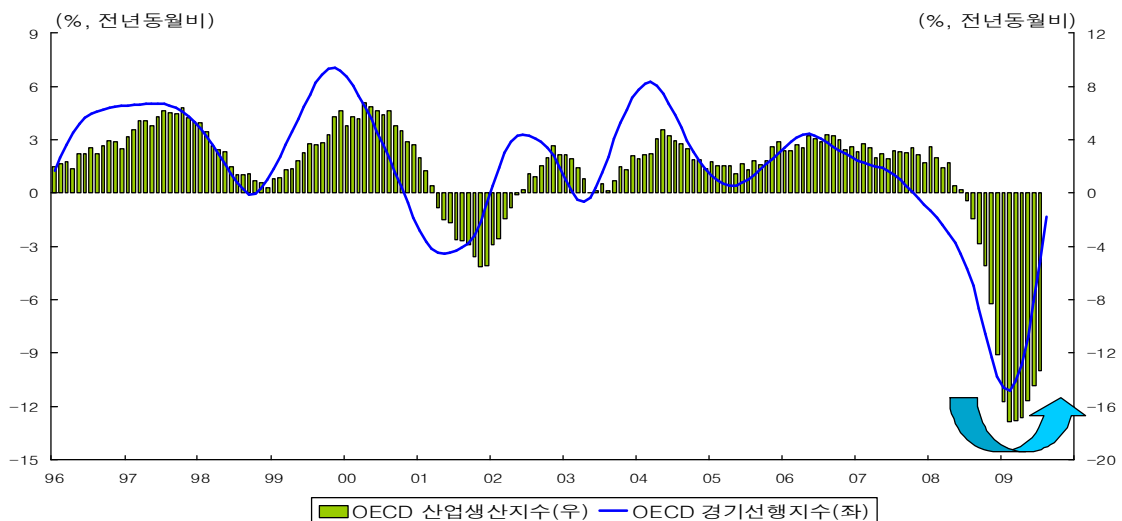
2. 대외여건 전망

(1) 세계 경기

□ 세계경제, 금년 하반기 저점 통과 후 완만한 회복 전망

- 올 상반기 세계경제는 전후 최악의 침체 국면을 거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가 이어졌으나, 하반기 들어 각종 경제지표들의 안정세가 완연하게 나타나면서 저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지난해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社의 부도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가 급속하게 위축되면서 전후 최악의 침체 상황에 직면
- 그러나 각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과 국가간 정책 공조에 힘입어 세계경기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고 있으며, 하반기 들어서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림 1-6> OECD 산업생산지수와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자료 : OECD.

<표 1-3> 주요국의 최근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지 표 명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7월	8월	9월
미국	경제성장률	2.0	1.6	0.0	-1.9	-3.3	-3.8	-2.5	-	-	-
	산업생산	1.4	-0.4	-3.2	-6.7	-11.6	-12.9	-9.7	-12.5	-10.4	-6.1
	소매 판매	2.6	2.4	0.4	-8.0	-8.9	-9.5	-6.6	-8.5	-5.8	-5.7
일본	경제성장률	1.3	0.6	-0.3	-4.3	-8.6	-7.0	-4.5	-	-	-
	광공업생산	3.5	1.6	-3.3	-15.0	-34.0	-27.6	-	-22.7	-18.9	-
	소매 판매	0.6	0.2	0.8	-1.2	-2.9	-2.7	-	-2.5	-1.7	-
유로	경제성장률	2.2	1.5	0.5	-1.7	-4.9	-4.8	-4.1	-	-	-
	산업생산	3.0	1.1	-1.6	-9.6	-18.1	-18.2	-	-16.0	-15.3	-
	소매 판매	0.3	-0.5	-1.3	-1.7	-2.2	-1.8	-	-1.8	-2.0	-
중국	경제성장률	10.6	10.1	9.0	6.8	6.1	7.9	8.9	-	-	-
	산업생산	16.6	15.9	13.0	6.4	5.1	9.0	12.3	10.8	12.3	13.9
	소매 판매	20.6	22.2	23.2	20.6	14.9	15.0	15.4	15.2	15.4	15.5
	수 출	21.2	22.4	23.2	4.7	-20.2	-23.5	-20.4	-23.0	-23.0	-15.2

자료 : OECD;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안정, 체감경기 개선, 개도국의 빠른 회복 등에 따라 회복 국면에 접어들겠으나, 출구전략 도입 여부, 고용시장 부진 지속기간, 원자재가 불안 가능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에 선행하는 체감경기 관련 지표들이 완연한 개선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를 기대

- 다만, 각국의 출구전략 도입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데다 고용시장 부진의 지속 정도, 원자재가 불안 재현 가능성 등은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중 선진국 경제의 플러스 성장률 회복과 개도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 등에 힘입어 연 3%대가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지난 2004~07년중 세계경제가 연평균 5% 성장해 온 점을 감안할 때 3% 내외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선진국은 유로권의 제로 성장률 전망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간 1%대의 성장률 예상
- 개도국은 중국(9.0%) 등 아시아 개도국의 빠른 성장세 회복을 기대

<표 1-4>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망)
		1/4	2/4	상반기	연간(전망)	
세계경제	3.0	-	-	-	-1.1	3.1
OECD	0.6	-4.7	-4.6	-4.7	-3.4	1.3
미국	0.4	-3.3	-3.8	-3.6	-2.7	1.5
일본	-0.7	-8.7	-7.2	-8.0	-5.4	1.7
유로	0.7	-4.9	-4.8	-4.9	-4.2	0.3
중국	9.0	6.1	7.9	7.0	8.5	9.0
세계교역	3.0	-	-	-	-11.9	2.5

자료 : IMF; 미 상무부; 일본 내각부;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정보센터.

□ 세계 교역, 제한적 회복 전망

- 세계 교역량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2009년중 두 자릿수의 감소세가 예상되는 등 극심한 부진이 예상되나,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09년중 전후 최악의 경기 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대폭적인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나, 2010년에는 경기 회복 추세에 따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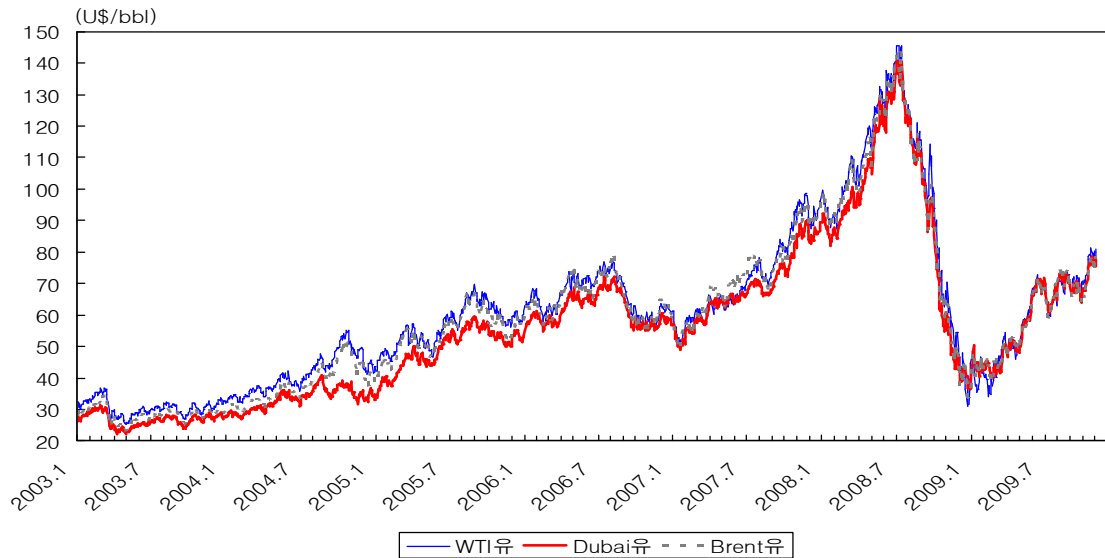
*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 : '09년 -11.9% '10년 2.5%

- 최근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무역마찰이 빈번해지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 움직임을 보이면서 세계 교역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2009년중 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는 사상 최고치(약 437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WTO)
- 지금까지는 선진국들이 글로벌 경기 회복 공조 차원에서 수입규제를 자제하는 반면, 개도국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모습이었으나, 선진국들의 규제 강화 움직임도 나타나기 시작
- 각국이 금융위기후 부채조정 및 내수부진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수확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에서 공격적 무역전략과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2) 국제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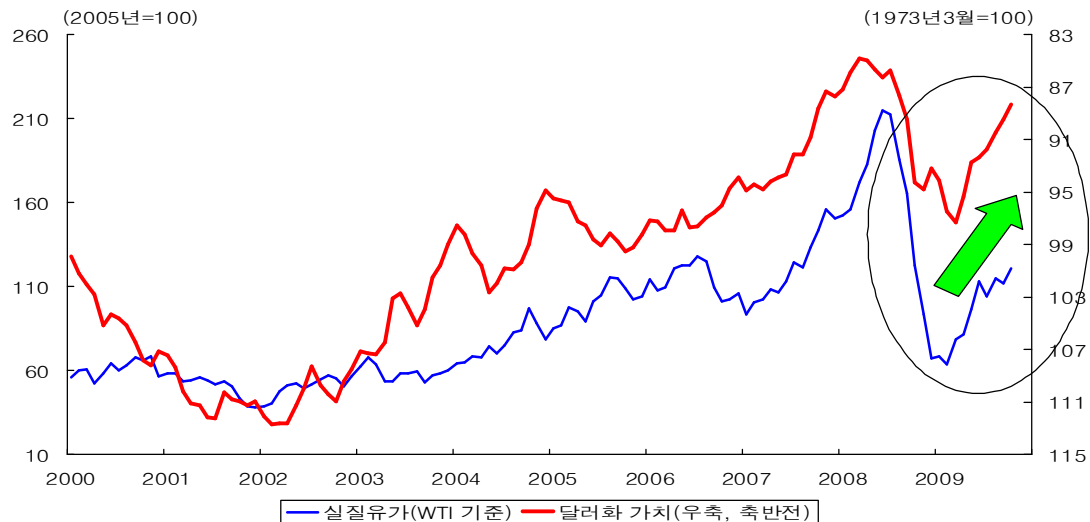
- 국제 원유가는 2009년 상반기 동안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3분기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낸 후 4분기 들어서는 경기 회복 기대감, 달러화 약세 지속 등으로 급등세로 전환
- 올해 국제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금융시장의 안정세 회복과 더불어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확산, 미 달러화 약세의 지속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
- 다만 세계경기의 회복이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점과 OPEC의 산유량 정책에 변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가급등은 미 달러화의 약세로 인한 투기 수요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그림 1-7> 국제 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그림 1-8> 실질 유가와 미 달러화 가치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미 연준(FRB)

주 : 실질유가는 WTI유 가격을 미국의 소비자물가로 나눈 수치이고, 달러화 가치는 FRB에서 공식 발표하는 실질실효환율지수를 의미. 2009년 10월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아직 미발표하여 9월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

-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오름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유가 급등을 지지할 만한 요인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유가 수준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낮아 보임.

- 현 유가 수준이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미국의 재정수지 악화 및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의 정도가 유가 향방의 주요 관건

*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현재의 유가 상승세는 펀더멘털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배럴당 50달러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주장

- 세계원유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OPEC은 유가가 적정 범위(배럴당 75~80달러)를 넘어설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유가의 지나친 급등을 경계하고 있는 입장

○ 2010년 국제 원유가는 현 수준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약 77달러 내외('09년 대비 약 24% 상승)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미 달러화의 약세가 더욱 심화될 경우 유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 존재

<표 1-6> 주요 기관의 2009~10년 국제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

유종	WTI		Brent		Dubai ²⁾			3대평균
전망기관	EIA	PIRA	PIRA	CGES ¹⁾	CERA I	CERA II	CERA III	IMF
전망시점	09.11	09.10	09.10	09.10	09.10			09.10
2009년	62.0	62.5	62.1	60.8	60.4	57.5	62.7	61.5
2010년 (상승률)	78.1 (26.0)	83.9 (34.3)	82.3 (32.5)	68.7 (13.0)	63.3 (4.8)	47.0 (-18.3)	88.4 (41.6)	76.5 (24.3)

자료: EIA; PIRA; CERA; CGES; IMF.

주 1) 기준유가 시나리오 전망. 참고로 2010년 고유가 시나리오(공급 부족) 가격은 Brent 기준으로 약 87.9달러 전망

2) CERA는 시나리오별(I: 기준유가, II: 고유가, III: 저유가) 전망치 기준

3) 2008년 연평균 가격은 WTI 99.8달러, Brent 97.4달러, Dubai 93.7달러, 2009년 11월 현재까지의 평균 가격은 WTI 60.6달러, Brent 60.5달러, Dubai 60.5달러

<표 1-7> 2010년 국제 원유가 전망 (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구 분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¹⁾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Dubai유	51.6	72.4	62.0	74.1 (43.6)	79.0 (9.1)	76.8 (23.8)

주 1) 11월 현재까지의 평균치는 70.8달러, 연말까지 배럴당 평균 80달러 전제

2) ()는 전년동기대비 변화율

(3) 원/달러 환율

- 올해 3월초 1,50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최근에는 1,100원대로 하락

* 원/달러(종가, 원) : 1,570.3원(최고 3.2일)→1,162.8원(11.30일), 25.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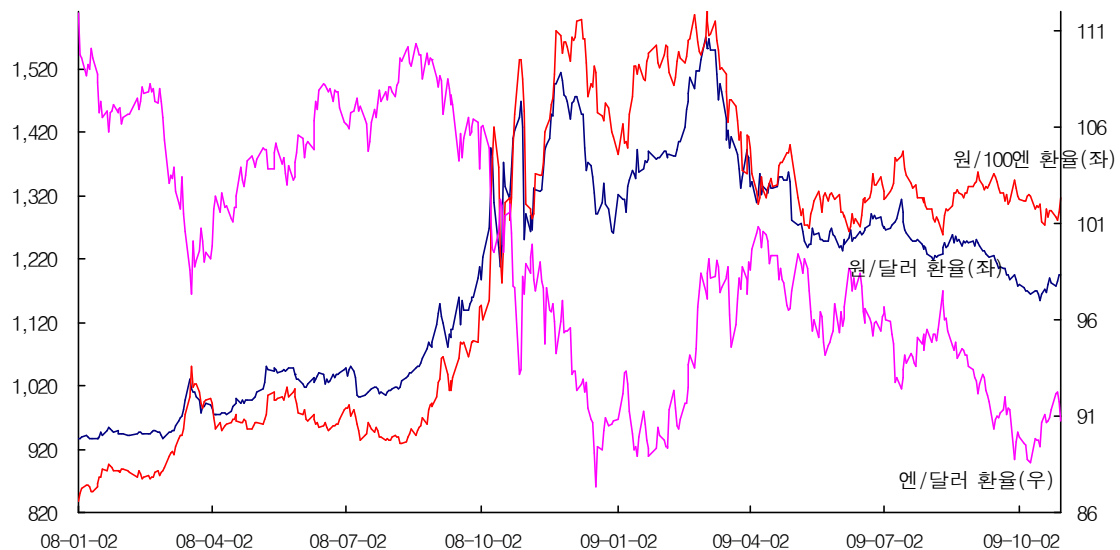
1,321원(연초 1.2일)→1,162.8원(11.30일), 11.9% 하락

- 환율 하락은 글로벌 달러의 약세 기조 하에 경상수지 흑자 지속·자본수지 개선에 따른 달러화 공급 확대, 주식과 채권 등으로의 외국인 투자자금 지속적 유입 등에 기인
- 국내외 경제가 추가 침체 없이 회복세를 지속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하락기조가 이어져 2010년에는 연평균 1,10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다만 환율 하락속도는 올해에 비해 훨씬 완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추이, 당국의 개입 수준, 국내외 증시 랠리 지속 여부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美 연준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종료 등 출구전략 및 물가상승 압력 가시화 등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전망(달러 캐리 트레이드 약화 및 엔 캐리 트레이드 재개)
 - 주식시장의 FTSE 선진국지수, 채권시장의 WGBI(글로벌국채지수)

편입효과 소멸로 국내로의 달러유입 속도가 둔화

- 2010년 원/달러 환율은 '09년 평균(1,278원)보다 13.9% 하락한 연평균 1,100원 내외로 예상
- 엔/달러 환율은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증권투자로 인한 자금 순유출,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일본정부의 엔고 억제 입장(약세요인)과 글로벌 달러 약세 및 일본 경기의 회복세 진입(강세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수준에서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그림 1-9> 원/달러, 엔/달러, 원/100엔 환율 추이



3. 2010년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 : 2010년 4.8% 성장 전망

- 금년 성장률은 3분기 GDP가 예상외의 호조를 보인데다 작년 4분기 GDP가 낮은 수준이었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0.1%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한편 세계경제가 최근의 회복추이를 이어가고, 유가와 환율이 상기 전망 전제에 따른 경우, 2010년 국내경기는 전반적 경기회복세와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에 힘입어 4.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4.8%의 연간 성장률은 2000년 이후의 확장국면 평균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는 전년 상반기 침체의 기저효과에 힘입은 수치로, 체감 회복속도는 이보다 훨씬 완만할 것
 - 전년 상반기 침체의 기저효과가 배제된 하반기 성장률(3.3%)이 실제 회복속도나 체감 경기 추이를 보다 근사하게 반영할 것
 - 2000년 이후 우리경제의 전기비 분기성장률은 평균 1% 정도이나, 2010년의 전기비 분기성장률은 이에 다소 못미칠 전망
- 전년 성장패턴의 기저효과로 상하반기 성장률 격차가 상당히 큰 상호하저의 추이(전년동기비 기준)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 달러 하락에 따른 유가·환율 급변동이 주요 하방위험요인(downside risk), 국내산업의 재고 rebuilding은 상방위험요인(upside risk)

- 부양효과 소진, 출구전략 등에 따른 세계경제 더블딥 가능성과 달러화 하락과 맞물린 유가 및 환율 급변 가능성 등이 내년 경기를 둘러싼 주요 불안요인
- 주요국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시행된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금년중에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크게 축소될 전망

- 경기회복세 가시화에 따라 각국이 출구전략 추진시 재침체 가능성도 존재
 -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의 경우도 최근 경기부양에 따른 버블팽창 및 과잉설비 우려가 높아 일부에서는 과열억제정책으로 선회시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

- 미국이 부채경감 및 수출확대를 위해 달러 약세를 적극적으로 용인할 경우 상기 기본전망보다 유가와 환율이 훨씬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
 - 실물경기 회복세가 아직 강력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급등이나 환율의 급락은 경기회복세를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

- 그밖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불안, 선진국 고용불안 심화 등에 따른 재침체 가능성 등도 경계할 만한 변수

○ 반면 경기회복에 따른 국내 주요산업의 재고 rebuilding 속도는 내년 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주요 변수

- '09년 1~3분기중 재고 감소의 GDP 성장기여도는 -5%p를 넘는 매우 큰 폭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급감한 재고수준을 빠르게 회복시킬 경우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외환위기 직후 재고변동의 GDP 성장기여도는 '98년에 -2.6%p, '99년 3.9%p로 성장률에 큰 영향
- 본전망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회복을 전제하여 2010년 재고 변동의 성장기여도를 3%p 내외로 전망

□ 중기적으로 회복세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기적 관점에서 이번 경기회복을 전망하면, 과거 우리경제의

회복국면에 비해 이번 회복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과거 대형 침체의 경우 저점 ~ 완전회복까지 평균 4.5분기가 소요
 - 한국경제는 이번 침체 이전에 4차례의 대형 침체(1972년, 1975년, 1980년, 1998년)를 경험
 - 이들 침체로부터의 회복은 금번 회복국면과 유사하게 환율 급등을 동반한 수출 회복이 주도하였으며, 저점~완전회복(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 돌파)까지 4~5분기 소요
(상세한 내용은 강두용(2009), “대형침체 이후의 경기회복 : 한국경제의 과거 경험과 이번 침체에 주는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453호 참조)
- 이번 침체의 경우, 과거에 비해 수출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세계교역의 침체 폭이 깊고 부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출 환경이 불리하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전망

<표 1-7>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전기대비)	-3.2 (1.4)	3.4 (2.0)	0.1 —	6.4 (0.7)	3.3 (0.9)	4.8 —
민간소비	-2.6	3.3	0.3	5.5	3.0	4.2
건설투자	2.8	4.0	3.4	2.2	2.9	2.5
설비투자	-19.5	0.5	-9.8	19.3	9.7	14.1
통관기준 수출 (%)	1,653 (-22.8)	1,987 (-4.5)	3,639 (-13.8)	1,935 (17.1)	2,170 (9.2)	4,105 (12.8)
통관기준 수입 (%)	1,451 (-34.3)	1,786 (-16.7)	3,236 (-25.6)	1,820 (25.4)	2,049 (14.8)	3,869 (19.6)
무역수지	202	201	403	115	121	236

주 : 1) 전기대비 성장률은 분기GDP의 전기비 성장률 평균
 2)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입차

□ 민간소비 : 4.2% 증가 전망

○ 최근 민간소비는 자산가격 회복, 경기부양책 효과, 교역조건 호전 등에 따라 빠른 회복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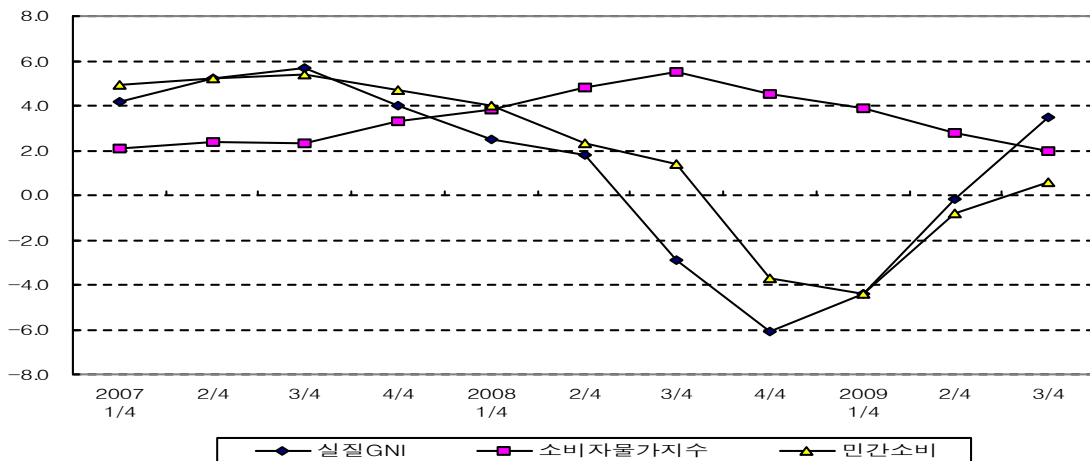
- 부동산, 주가 등 자산가격이 연초 이후 빠르게 회복되면서 소비회복에 기여
- 내수경기부양을 위해 금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은 승용차 내수 판매를 크게 증가시키면서 하반기 소비증가를 주도
- 유가 등 원자재가가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교역조건이 호전되면서 가계 구매력 증가에 기여

*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

('08.4/4) -13.0 → ('09.1/4) 4.9 → (2/4) 11.9 → (7월) 9.2 → (8월)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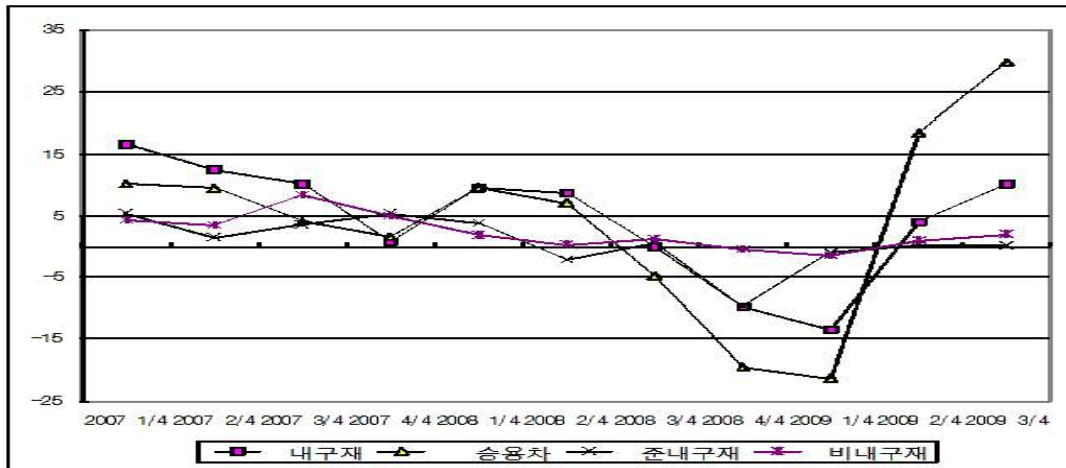
<그림 1-10> 민간소비, 실질GNI 및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11>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



자료 : 통계청

- 소비심리도 빠르게 개선되면서 현황 및 전망 지수가 모두 2분기 이후 100을 상회하여 소비 회복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한은 소비자심리지수(CSI) ('09.1/4) 84.3 → (2/4) 103 → (3/4) 112 → (10월) 117

-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이를 반영하여 2010년에도 소비 여건은 개선 추이를 이어갈 전망

- 민간소비는 2010년 4.2%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09년 상반기 소비침체의 기저효과와 전반적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경기부양책의 소멸, 고용 부진 등이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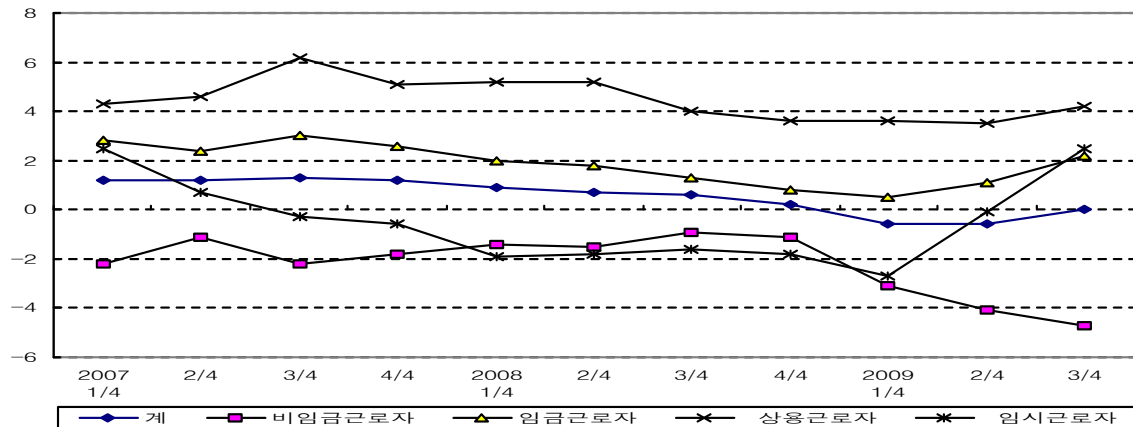
- 금년말로 해지되는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은 승용차 교체 수요의 선취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승용차 내수가 감소하면서 소비 증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경기부양에 의한 공공근로를 제외하면 민간고용은 상당히 부진한 상황으로, 내년에도 회복세가 비교적 완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한다는 점에서, 고용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그밖에 내년 유가 추이, 출구전략 시행 및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부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의 추가 확산 및 지속
 정도 등이 변수 내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1-12> 고용 추이



자료 : 통계청

□ 설비투자 : 경기회복, 전년 부진의 기저효과로 두 자릿수 증가
 전망

- 설비투자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실물경기 침체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두 자릿수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3
 분기 이후 감소세가 완화되는 추이
- 다만 속보성 지표인 통계청의 설비투자추계지수는 9월 이후 증가로
 돌아섰고 국민계정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로는 2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순환국면 상으로는 여전히 장기추세를 밑도는 침체 상태
 이나 2/4분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
- 주요 선행지표 및 투자 환경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의 경우 3/4분기 6.5%(전년동기대비)로 증가세로 돌아섰으
 며 10월에도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이어가 향후 회복 전환을 시사

- 설비투자조정압력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제조업평균가동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설비투자 환경도 점차 개선되는 추이
- 다만 3분기 기계수주 증가의 경우에도 주로 공공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민간수요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기업 채산성의 경우 매출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수익률은 저금리와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환율 효과 등에 힘입어 경기침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

<표 1-8> 설비투자 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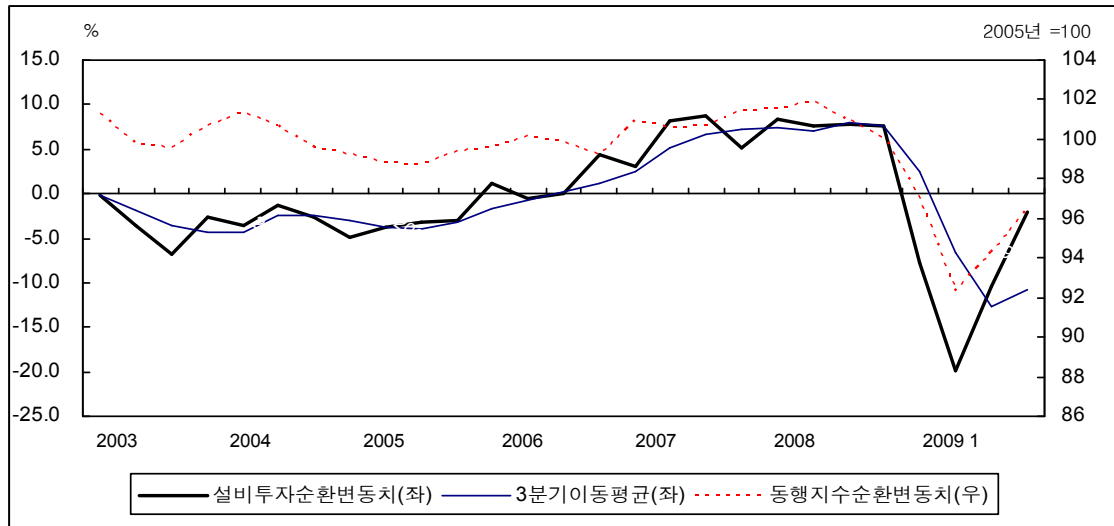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3/4	4/4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설비투자	4.3 (0.2)	-14.0 (-14.2)	-2.0	-23.5 (-11.2)	-15.9 (10.1)	-8.7 (8.9)	-	-	
설비투자 추계지수	3.0 (1.0)	-13.4 (-9.3)	-4.3	-17.7 (-11.6)	-13.4 (6.6)	-10.1 (4.2)	-15.5 (4.2)	5.0 (17.9)	0.3 (-5.8)
기계수주	-15.2	-47.3	-12.8	-33.8	-14.1	6.5	-15.7	31.9	3.0
설비투자 조정압력	0.4	-15.6	-2.2	-18.9	-8.5	1.5	-1.7	8.2	-3.0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생산지수증가율 - 생산능력증가율로 정의

<그림 1-13> 설비투자의 순환국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의 순환변동치 = $\log(\text{설비투자}/\text{HP filtered 설비투자}) \times 100$

<표 1-9> 주요 기업경영분석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매출액 증가율	9.5 (9.3)	18.2 (18.5)	24.8 (26.0)	28.6 (29.9)	13.3 (12.6)	-0.7 (-3.8)	-4.0 (-5.5)	-3.0 (-1.8)
매출액영업이익 률	5.4 (5.9)	7.4 (8.1)	7.6 (9.2)	5.9 (6.5)	1.7 (2.7)	4.7 (5.0)	5.7 (6.6)	7.3 (8.3)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114.9 (107.1)	93.5 (88.9)	96.4 (92.8)	104.3 (102.6)	108.6 (102.6)	115.5 (109.1)	109.1 (100.0)	104.2 (94.0)

자료: 한국은행, 2009년 1/4 ~ 3/4분기, 기업경영분석 보도자료

주: () 안은 제조업체 기준이며 부채비율은 해당 분기말기준임.

○ 2010년 설비투자는 수출과 민간소비의 회복세, 전년의 큰 폭 감소에 따른 반등 효과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14.1%)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는 전년 상반기 큰 폭 감소의 기저효과에 힘입은 부분이 크고 이를 제외할 경우 증가세는 과거 경기회복 국면의 평균 증가율과 비슷할 전망

·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 세계 교역 부진에

따른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 고용부진 등은 설비투자 증가세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그밖에 유가 및 환율 추이, 출구전략 시행 및 경기부양효과 감소 폭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업종별로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이 설비투자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 민간 회복, SOC 공공투자 지속으로 2%대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건물건설 부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 지속
 - 민간건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물건설의 기성총액은 3/4분기 -11.8%(전년동기대비)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20.8%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되는 추이

<표 1-10> 건설관련 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3/4	4/4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건설투자	0.2 (0.1)	-5.6 (-3.0)	-2.1	1.6 (5.2)	3.7 (1.7)	2.5 (-2.1)	-	-	
건설기성	10.6	-2.2	4.7	4.5	7.0	-0.6	-7.9	7.7	-6.5
건설수주	-22.7	-6.5	-9.0	-16.5	-2.0	9.1	-29.5	58.4	27.2
건축허가 면적	-13.5	-41.9	-20.1	-31.6	-32.7	-4.6	-7.4	31.4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해양부

주: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3/4분기 9.1%(전년동기대비)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민간건설은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3/4분기 -10.7%를 기록

- 건축허가면적 역시 감소폭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감소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민간 건설투자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10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등 SOC 투자지속, 민간건설의 완만한 회복으로 연 2.5% 내외 증가할 전망

□ 수출입 : 수출 12.8% 증가, 무역흑자 236억 달러 전망

- 올해 10월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9.7% 감소, 수입은 31.5%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33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작년 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은 3분기 이후 세계 경기침체의 진정, 경기부양에 힘입은 일부 지역에서의 수출 증가 반전 등으로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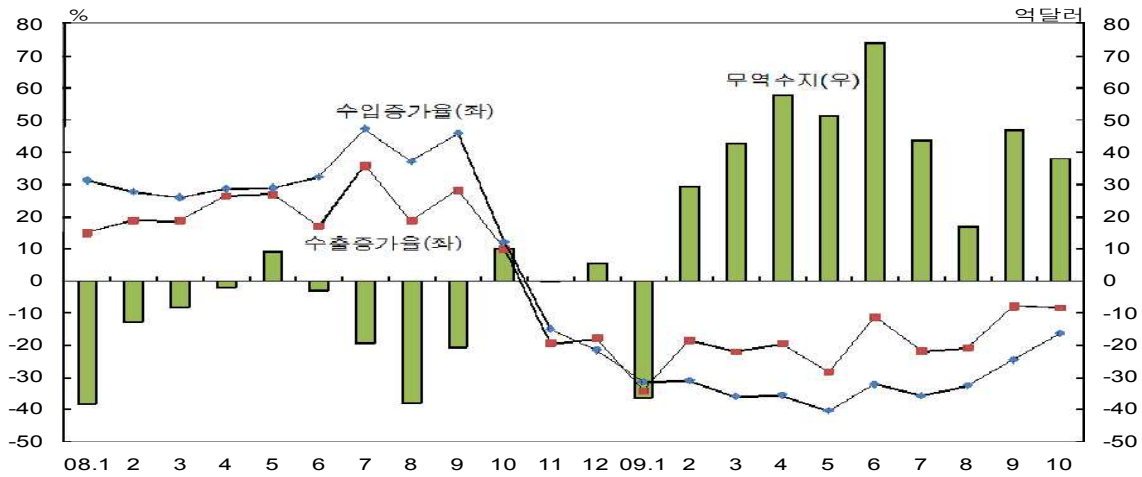
* 수출증가율(%) ('09.4) -19.9 → (5) -28.8 → (9) -7.8 → (10) -8.5

- 지역별로는 대양주(41.2% 증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 지속

- 경기부양책 효과 등에 힘입어 최대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은 9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 수입은 내수 침체와 원자재가 하락에 따라 수출 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역시 9월 이후 감소폭이 완화되는 추이

<그림 1-14> 최근 수출입 동향



○ 금년 수출입의 큰 폭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 감소뿐 아니라 환율 상승(수출), 원자재가 하락(수입) 등에 따른 단가 하락에 크게 기인하며, 수출의 경우 물량 기준으로는 6월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전환

- 환율 하락, 세계 경기 회복,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수출입 단가도 점차 상승세로 전환되는 추이

<표 1-11> 최근 수출입단가 및 물량지수 추이

단위: 2005=100, %

구분	수출단가		수출물량		수입단가		수입물량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지수	증가율
09.1	86.5	-16.7	98.5	-25.2	101.1	-20.4	114.2	-13.7
2	84.9	-17.7	115.1	-8.1	99.2	-23.9	105.2	-9.3
3	84.4	-21.3	130.6	-8.4	98.5	-25.2	112.3	-14.3
4	86.6	-21.8	136.5	-4.3	96.3	-27.6	117.0	-12.1
5	88.4	-22.0	123.8	-11.0	97.0	-31.4	110.7	-12.3
6	90.1	-23.0	138.8	4.3	101.1	-32.6	116.2	-0.7
7	89.9	-25.2	145.1	2.1	105.1	-31.5	120.4	-7.2
8	91.5	-20.5	130.5	0.7	106.4	-30.4	118.4	-3.2
9	94.3	-15.5	149.7	8.6	108.1	-26.0	127.0	1.2
1~9	88.5	-20.5	129.9	-4.4	101.3	-28.0	115.8	-8.1

자료: 한국은행

-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제품의 수출이 호조 내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부품 제외), 철강, 일반기계 등은 부진이 지속중
- 조선은 기존 수주물량에 힘입어 상반기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세가 확대되는 추이

<표 I -12>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및 비중

단위 : 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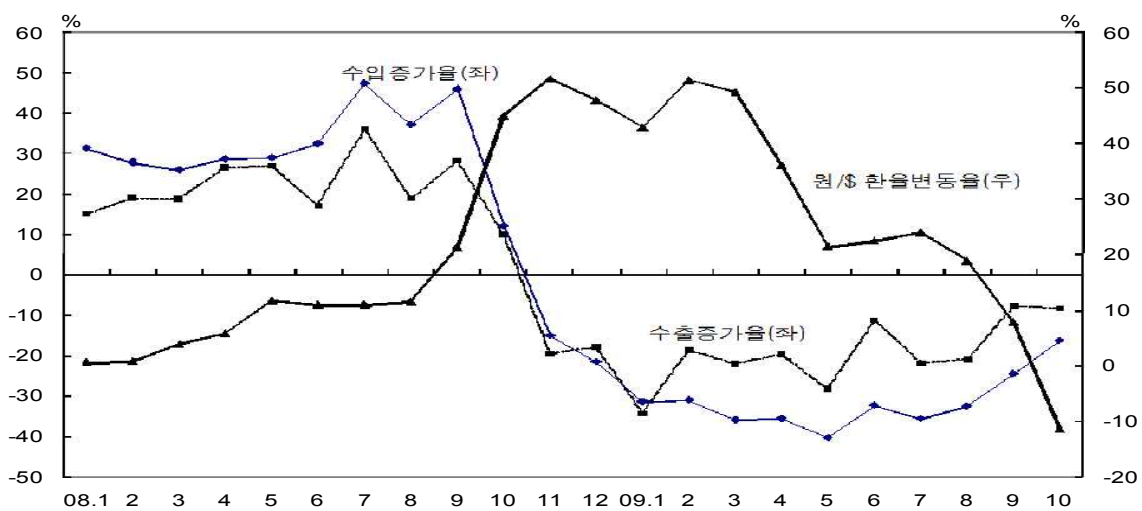
구 분	품 목	증가율					비중	
		2008	2009				2008	2009 (1~10)
			8	9	10	1~10		
증가 또는 소폭 감소	선박	55.4	-31.5	-7.4	-9.2	10.7	10.2	12.7
	LCD	9.5	32.2	29.4	38.8	17.4	4.3	6.4
	반도체	-16.0	-7.2	22.8	36.8	-16.5	7.8	8.3
	섬유류	-1.0	-18.3	-2.8	-14.4	-16.7	3.2	3.2
대폭 감소	자동차	-6.0	-24.1	20.5	-24.1	-33.2	8.3	6.5
	무선통신기기	17.3	-16.5	-21.5	-30.1	-16.5	8.5	8.9
	철강	29.7	-36.5	-33.7	-31.0	-26.2	7.1	6.5
	석유화학	11.4	-18.1	-14.0	0.4	-22.9	7.6	7.6
	석유제품	56.8	-44.8	-39.3	-25.8	-46.0	8.9	6.3
	일반기계	21.3	-34.5	-22.3	-20.9	-32.5	8.8	7.4
	가전	-4.0	-22.4	-12.3	-5.4	-28.3	3.1	2.8
	컴퓨터	-22.5	-25.4	-17.0	-3.7	-33.2	2.5	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경기침체에 따라 수출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수출 감소폭이 작은 편
- 또한 위기 발발 이후 일부 주력수출품목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이

- 다만 이러한 상대적 호조는 환율 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환율 하락과 더불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
- 다만 환율 상승효과의 지속기간은 비교적 길고 또한 최근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화 환율은 주요경쟁상대국에 비해 위기 이전 대비 상당폭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환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당분간 상대적 호조가 이어질 전망

<그림 1-15> 최근 환율과 수출입 추이



<표 1-13> 전략품목별 수입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분	국가	2007	2008	2009
무선통신기기	미국	13.1	15.7	17.9
	중국	18.7	18.6	20.6
자동차	미국	6.1	5.9	8.1
반도체	미국	11.4	12.7	12.5
	중국	17.2	17.6	16.9
LCD	중국	30.0	29.1	36.5
선박	EU	18.8	31.4	-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각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

2: 2009년은 9월까지 자료이며 미국은 8월까지 자료임.

○ 2009년 수출은 최근의 감소세 완화 추이를 고려할 때, 연간 14% 내

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수입도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연간 전체로 25% 정도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를 훨씬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수준인 4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0년에는 국내외 경기 회복과 전년 침체의 기저효과로 수출입이 모두 큰 폭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진전으로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전년 침체의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12.8%의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일 전망

- 수입은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회복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2009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큰 폭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 폭이 축소되어 236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1-14> 2010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09년			2010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	1,653 (-22.8)	1,987 (-4.5)	3,639 (-13.8)	1,935 (17.1)	2,170 (9.2)	4,105 (12.8)
통관기준 수입 (%)	1,451 (-34.3)	1,786 (-16.7)	3,236 (-25.6)	1,820 (25.4)	2,049 (14.8)	3,869 (19.6)
무역수지	202	201	403	115	121	236

Ⅱ. 2010년 산업전망

1. 2009년 동향

□ 내수는 크게 부진한 양상

- 10대 주력산업의 내수는 자동차, 조선,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 심리 위축과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자동차는 노후차 세제감면 조치, 조선은 기존 수주의 건조 지속, 반도체는 LCD TV, 휴대폰 등의 응용제품 수출증가로 수요 증가
 - 철강은 건축경기 침체와 재고수요 급감으로 주력산업 중 가장 높은 23.5% 감소를 기록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는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각각 12%와 14%의 두 자릿수 감소율 기록

□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생산도 매우 저조

- 10대 주력산업의 생산은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치킨게임을 통한 생산이 늘어난 반도체가 16.8%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한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가 각각 5.3%, 3.3%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반면,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가전은 10~13%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세

- 만성적 공급능력 과잉을 겪고 있는 조선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공급능력 과잉의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은 감산 또는 수요 증가로 재고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공급과잉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조선은 Clarkson에 따르면 2012년 건조량 기준 약 91.7%가 과잉설비일 정도로 세계적으로 공급능력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
- 디스플레이는 3분기까지 세계 수요 회복으로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나, 4분기 들어서 수요 증가 둔화 및 경쟁적 생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
- 일반기계는 설비투자 부진, 철강은 가동률 조정, 자동차는 노후차 교체 세제감면책에 따른 수요 증가, 석유화학은 실적 호조, 반도체는 PC 수요 증가와 대만 업체 가동률 회복 지연 등으로 재고가 감소하는 추세
- 다만 가전은 연말 성수기 대비 비축 물량용 증산, 통신기기는 보조금 축소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하반기에 재고가 다소 증가

□ 비IT제조업군의 부진으로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10% 감소

- 조선과 디스플레이 외에 모든 업종이 수출 감소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10.7% 감소한 것으로 추정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현지 TV수요 증가와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한 북미 시장의 TV 수요 증가로 36.7%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조선은 기존 확보된 건조 물량 인도로 13.6% 증가한 것으로 추정
- IT제조업군의 수출 감소율은 4.7%인데 비해 비IT제조업군은 14.1% 감소율로 더욱 저조
- 특히 해외 수요 감소와 국제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철강 등 소재 산업군의 수출은 19.5%로 크게 감소

□ 10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내수 부진으로 24% 감소

- 대중 패널 수입이 증가한 디스플레이 외에 모든 업종의 수입이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10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전년대비 23.8%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국내경기 부진으로 전방산업의 수요 위축과 국제가격 폭락을 겪은 소재산업의 수입이 36.9% 감소하여 전체 수입 감소를 주도
- IT제조업은 15.5%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덜 한 편

2. 2010년 전망

□ 높은 증가세의 IT산업군이 제조업 내수 주도할 전망

○ IT산업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로 제조업 내수를 주도할 전망이다.

- IT산업군의 내수는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과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여 명목 증가율보다 실질 증가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는 전년 대비 기저효과, 넷북, 노트북 등의 원도 7 출시 효과, 가격하락에 따른 LCD TV 수요증가 등으로 41%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3G 및 프리미엄폰으로의 전환수요, 스마트폰 시장 확대, 통신망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장비 수요증가, 윈도우 7 출시효과 등으로 15.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반도체는 디지털 TV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 확대, 스마트폰과 자동차의 수출 호조, LED와 태양전지 등의 수요 증가로 7.4% 증가할 전망
- 가전은 남아공 월드컵 특수에 따른 디지털 영상기기 수요,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저가 디지털 TV 보급 정책 등에 힘입어 3.8% 증가할 전망

<표 II-1> 2010년 산업전망 기상도

	내수	생산	수출	수입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철강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디스플레이	☀☀	☀☀	☀☀	☀☀
반도체	☀	☀	☀☀	☀☀

- 주 : 1) 전망 : 전년대비 증가율 기준,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
-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의 내수는 증가하나, 자동차와 조선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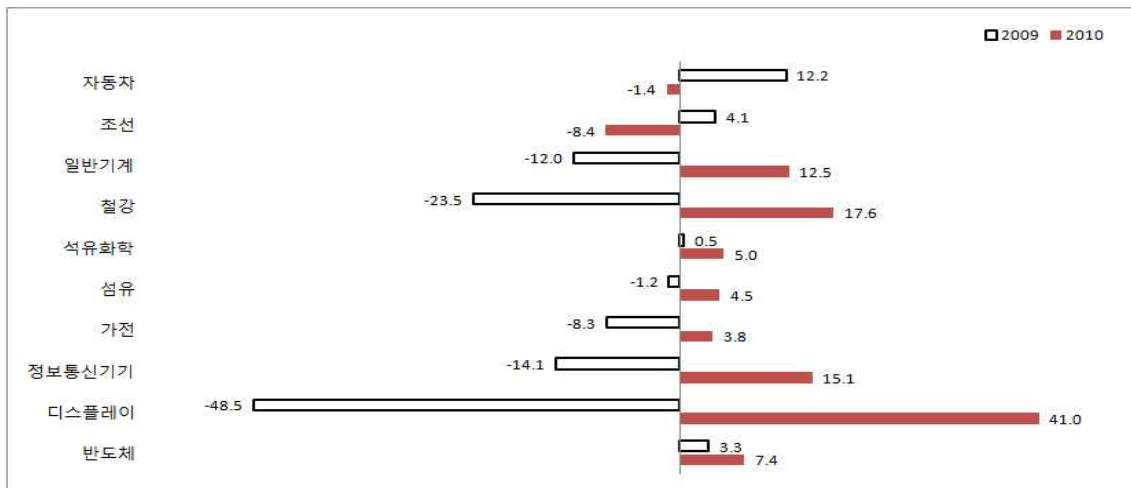
- 일반기계는 수요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 노후설비 교체 압력 증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로 12.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반면, 자동차는 노후차 세제감면책 종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1.4%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은 철강이 호조세인 가운데 섬유와 석유화학은 완만히 증가할 전망

- 철강은 건설 및 설비투자가 회복하면서 낮은 수준의 재고를 보완하기 위한 재고수요 증가로 17.6%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그림 II-1> 2010년 주요 업종별 내수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석유화학은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호조와 4대강 개발사업 등 건설 부문의 수요 증가로 5% 증가할 전망
- 섬유는 의류 소비 및 산업생산 증가에 의한 섬유소재 내수 확대 등으로 4.5% 증가 예상

□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생산은 높은 증가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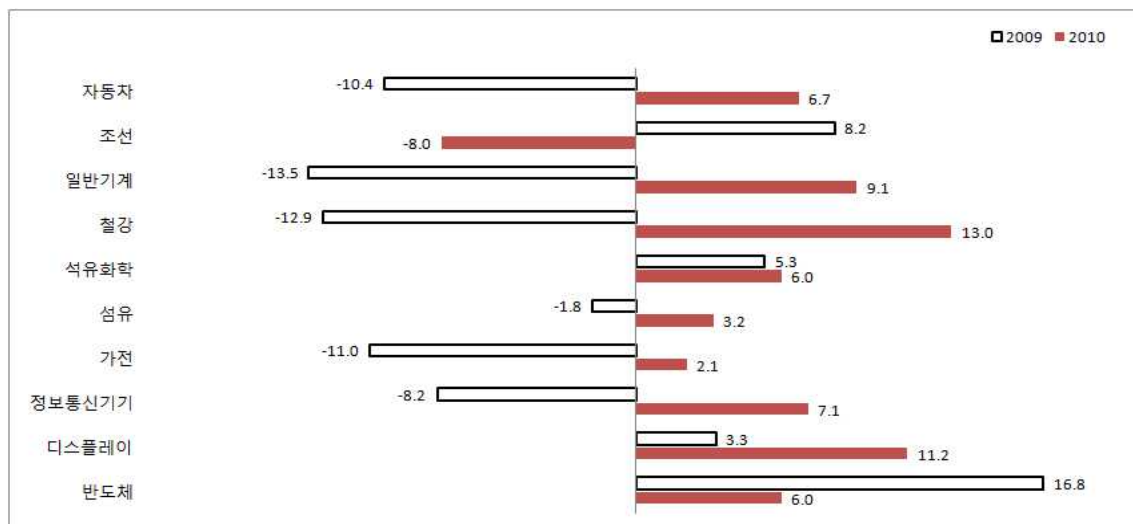
○ 전년 대비 기저효과와 아울러 수출 및 내수의 회복세에 힘입어 대부분의 업종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IT산업군이 제조업의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다.

- 디스플레이는 상반기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해소되고 월드컵 특수로 2009년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실현하며 11.2%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해외업체의 설비투자 지연에 따른 상대적 반사 이득과 해외 수요 회복으로 6.0%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국내외 프리미엄폰과 윈도우 7 출시 효과, 국내 통신장비 수요 증가 등 전반적인 내수 및 수출 회복세로 7.1% 증가할 전망
 - 이에 비해 가전은 남아공 월드컵 특수 등의 국내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폭이 미미하고 개별소비세 부과로 대형 가전 매출 둔화가 예상되어 2.1%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리는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와 자동차의 생산은 증가하나, 조선은 감소할 전망
- 일반기계는 국내 설비투자 확대와 해외 수요 증가로 9.1%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그림 II-2> 2010년 주요 업종별 생산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자동차도 내수가 감소되기는 하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6.7% 증가할 전망
- 반면, 2009년 8.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조선은 기저효과와 글

로벌 선사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인도 연기로 8.0% 감소할 전망

○ 소재산업군도 업종별로 생산 증가폭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철강이 호조세를 보일 전망

- 철강은 신증설 설비 가동, 토목용 철강제품의 수출 및 내수 호조, 유통 및 재고 수요 증가 등으로 13% 증가하여 2008년 수준에 근접할 전망

- 석유화학은 내수 성장이 완만하나, 생산설비의 대폭 확장과 수출 호조로 6% 증가할 전망

- 섬유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의한 수출 증가와 내수 확대에 3.2% 증가 예상

□ 10대 주력산업 수출은 10.8% 증가로 2008년 수준에 근접 예상

○ 수출은 원화 절상 기조가 제약 요인이거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과 개도국에 대한 수출 호조로 10.8% 증가하여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2009년에 상대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낮았던 IT산업군은 2010년에도 15.2%의 높은 증가율로 제조업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반도체는 남아공 월드컵, 중국의 엑스포, '윈도7' 등장으로 데스크탑 교체 및 넷북 구입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확산에 따라 17.0%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이 하반기부터 해소되면서 중국 경기부양 효과 지속, 각국 디지털방송 개시 및 월드컵 특수에 따른 디지털TV와 노트북 수요증대 등으로 15.1% 증가할 전망

<표 II-2> 주요 분야별 2010년 수출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T제조업	109,823 (-2.5)	45,488 (-20.9)	59,223 (13.2)	104,711 (-4.7)	53,880 (18.4)	66,767 (12.7)	120,647 (15.2)
비IT제조업	196,907 (17.1)	79,871 (-19.2)	89,233 (-9.0)	169,104 (-14.1)	86,764 (8.6)	95,966 (7.5)	182,730 (8.1)
(기계산업군)	121,601 (18.2)	50,832 (-16.8)	57,677 (-4.7)	108,509 (-10.8)	53,985 (6.2)	60,978 (5.7)	114,963 (5.9)
(소재산업군)	75,306 (15.3)	29,039 (-23.0)	31,556 (-16.0)	60,595 (-19.5)	32,779 (12.9)	34,988 (10.9)	67,767 (11.8)
10대 주력업종	306,730 (9.2)	125,359 (-19.8)	148,456 (-1.3)	273,815 (-10.7)	140,644 (12.2)	162,733 (9.6)	303,377 (10.8)

주 :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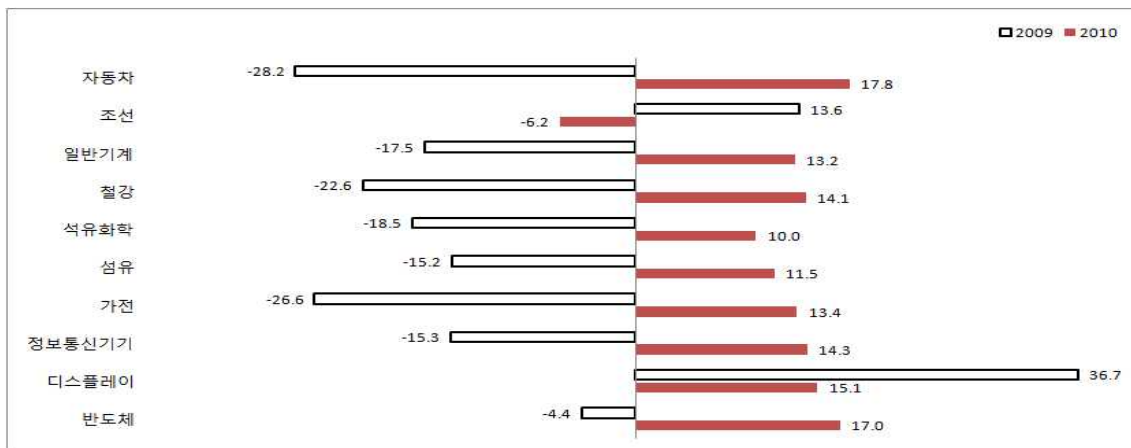
- 가전은 남아공 월드컵 특수와 한국 가전업체의 브랜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외 경제협력 확대, 중국 경제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13.4%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세계 휴대폰시장 회복, 세계 3G 및 스마트폰 시장 확대, 윈도우 7 출시에 따른 정보기기 수요증가 등으로 14.3%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은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철강과 섬유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11.8% 증가할 전망
 - 철강은 선진국 수요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과 중동을 포함한 신흥국의 수요 증가, 국제가격의 회복 등으로 14.1% 증가할 전망
 - 섬유는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대선진국 수출이 호전되면서 11.5% 증가할 전망
 - 석유화학은 기저효과와 아울러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중국의 수요

가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10% 증가할 전망

- 기계산업군의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부진으로 5.9%의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에 그칠 전망
 - 자동차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종료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나, 신흥국과 세계 소형차 수요 증가로 17.8%의 높은 증가세 전망
 - 일반기계는 중국의 높은 고정자산 투자세 지속, 미국의 원가절감에 따른 한국산 수요확대, 중동지역으로 플랜트 기자재 수출 수요 확대 등으로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반면, 조선은 글로벌 선사들의 재정악화 및 해운 불황으로 인해 건조하고 있는 물량의 인도가 지연되고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6.2% 감소할 전망

<그림 II-3>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출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10대 주력 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총수출 증가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수출 대비 비중이 2009년 75.2%에서 2010년 73.9%로 낮아질 전망이다.

-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조선,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반도체로서 4개 산업의 합계는 41%에 이를 전망

□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 전망

- 2010년 10대 주력업종의 수입은 2009년의 24%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12.4%의 높은 증가율이 전망되나, 규모는 2008년에 못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
- IT산업군은 높은 수출 증가에 따른 수출용 부품 수입 수요 확대, 해외 생산 제품 및 부품의 역수입 증가,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시장 공략 강화 등으로 14.8%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수출이 늘어나는 디지털 가전이나 휴대폰에 소요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증가로 10대 주력산업 중 가장 높은 15.8% 증가할 전망
- 2009년 21%의 큰 폭 수입 감소를 겪은 가전은 원화의 강세 전환으로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고가 및 저가 제품수요 증가, 수출용 부품 수입 증가 등으로 14.8%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휴대폰의 수출 호전에 따른 관련부품 수입 증가, 애플의 아이폰 등 해외업체들의 국내 진출 확대 등으로 13.8%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IT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회복에 따라 국내생산물량 부족분에 대한 수입수요가 발생하면서 10.6% 증가할 전망

<표 II-3> 주요 분야별 2010년 수입 전망

단위: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IT제조업	55,133 (5.7)	21,220 (-26.5)	25,347 (-3.5)	46,567 (-15.5)	24,836 (17.0)	28,630 (13.0)	53,466 (14.8)
비IT제조업	98,972 (24.5)	32,583 (-33.6)	38,225 (-23.4)	70,798 (-28.5)	37,638 (15.5)	40,788 (6.7)	78,426 (10.8)
(기계산업군)	36,442 (15.6)	14,521 (-21.5)	16,808 (-6.3)	31,329 (-14.0)	16,557 (14.0)	18,230 (8.5)	34,787 (11.0)
(소재산업군)	62,530 (30.4)	18,062 (-40.9)	21,417 (-33.0)	39,469 (-36.9)	21,081 (16.7)	22,558 (5.3)	43,639 (10.6)
10대 주력업종	154,105 (17.1)	53,803 (-31.0)	63,572 (-16.6)	117,365 (-23.8)	62,474 (16.1)	69,418 (9.2)	131,892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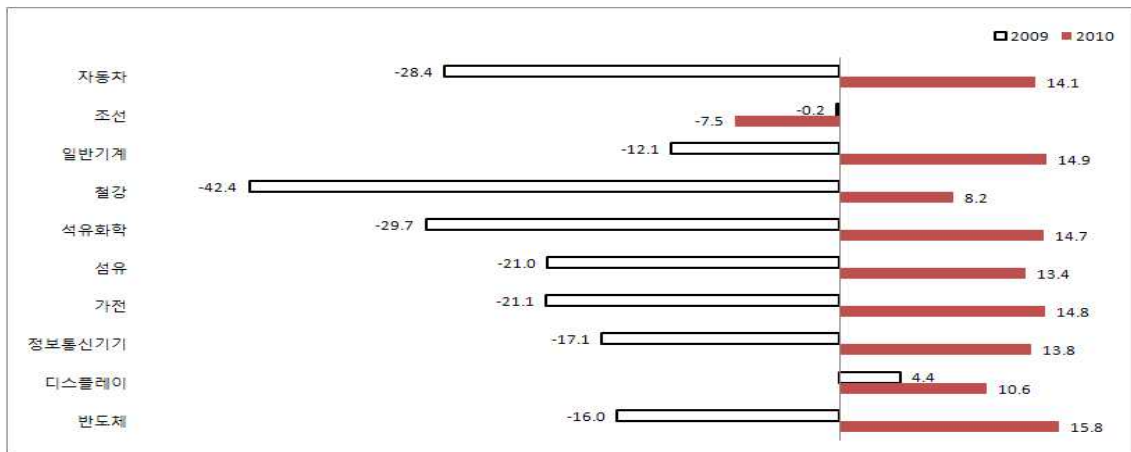
주 : 1)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기준임.

○ 수입차 증가와 외국산 설비 도입이 늘어나는 기계산업군은 11.0% 증가할 전망

- 자동차는 수입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따른 가격인하와 하이브리드차 등 다양한 제품 믹스로 14.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일반기계도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외국산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증가 등으로 14.9%의 높은 증가 전망
- 반면, 조선은 국내 건조량의 감소로 중국 현지공장에서 가공한 블록의 반입 규모가 줄어들면서 7.5% 감소할 전망

<그림 II-4>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주 : 달러표시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은 역수입 증가 속에서 국내 공급기반 확대 등으로 여타 산업군보다 낮은 10.6% 증가할 전망

- 섬유는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고가 제품의 수입 회복세, 베트남 등 해외 생산품의 역수입 증가로 13.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2009년 40%이상 수입이 감소했던 철강은 기저효과와 국내 철강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열연 및 중후판 신증설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공급여력이 늘어나면서 8.2%의 낮은 증가에 머물 전망
- 석유화학은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수입가 상승, 중동산 저가제품 수입 증가, 건설부문의 수요 확대 등으로 14.7% 증가할 전망

□ 정책적 시사점

- 구조 개편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위기 이후에 대비할 필요
 - 자동차와 전자의 선진 경쟁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는 미흡한 수준으로서 금융위기 이후 환경규제, 원자재 가격, 유가 상승 등 변화될 외적환경에 대비하여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력 강화노력 필요
 - 또한 중장기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화를 통해 사업 전환과 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
- 신흥시장 개척과 제품-서비스 결합형 진출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전략이 긴요
 - 중동 등 신흥지역과 경제협력 협정 체결 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으로 수출 증대를 도모
 -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외시장 확대 노력을 강화
 - 수급 불균형으로 수입수요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 현지밀착형 정보수집·분석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 환경친화적 소비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한 내수 진작책 필요
 -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우대 세제 지원 등으로 친환경제품 시장 조기 창출이 필요
 -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의 실적 확보 지원

○ 친환경 및 저에너지·고효율 제품개발 지원으로 녹색시장 선점

-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는 경제 부진을 돌파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친환경 제품, 저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기술개발을 가속화
- 우리도 세계의 녹색시장 선점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녹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친환경, 고효율, 최적화 생산 체제 구축이 필요

<표 II-4> 주요 산업전망의 정책적 시사점

업종	주요 내용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판매확대 및 조기정착 지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변화에 적응 지원
조선	-조선수요 침체를 보완할 다각화 / 사업전환 추진 유도 -확보된 건조물량의 안정적 관리 지원 -글로벌 공급력 과잉에 대응한 건조설비의 최적화 및 효율화 유도
일반기계	-종합적인 해외시장 확대전략 -대형프로젝트의 상용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실증사업화 -중동의 주요 플랜트 기자재시장 적극 공략
철강	-수입 급증, 저가 수입철강재의 유입 등에 대한 경계체제 상시가동 -해외 수출전략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지원 -SOC에 대한 공공투자 활용으로 철강수요 개발
석유화학	-수출 다각화 노력 지속 필요 -친환경 석유화학 산업으로서의 위상 구축 지원 -구조개편 및 사업 다각화, 전문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섬유	-첨단 기술섬유 개발 지원 가속화 -한·EU FTA 발효 대비
가전	-저가 디지털 TV보급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시장 선점 위한 스마트그리드 가전제품 개발 지원 -선진국 시장 진출 위한 대기전력 저감 가전제품 개발 지원
정보통신 기기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분야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제조사·부품·소프트웨어 기업간 유기적 협력 체계 마련 -와이브로 등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활성화
디스플레이	-현지시장의 수요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시장지배력의 지속적 확보위한 적극적인 글로벌 전략 필요 -친환경·저전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강화
반도체	-R&D인력 확대와 원가경쟁력 확보에 주력 -동종업체간 M&A를 통해 대형화 유도 -저전력 고효율 그린반도체 개발을 통한 녹색성장 선도

3. 주요 업종별 2010년 전망¹⁾

<자동차>

- 내수는 국내 경기회복 및 소비심리 개선과 다양한 신차 출시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노후차 세제감면책 종료, 가계부채 급증 등의 불안요인 상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137만대를 기록할 전망
- 수출은 주요국 경기부양책 종료와 글로벌 경쟁심화 등 수출환경 악화가 예상되나 기술적 반등효과와 자동차부품 수출 증가로 금액기준(자동차부품 포함) 전년대비 17.8% 증가한 414억 달러 전망
 - 자동차부품 수출은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해외생산 증가와 구미부품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외 완성차업체로의 납품기회가 늘어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산은 내수 감소가 예상되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하여 전년대비 6.7% 증가한 365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도요타 등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과 가격 인하, 하이브리드 차 출시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자동차부품 포함)으로 14.1% 증가한 62억 달러 예상

<조선>

- 수출은 상반기에는 3.9% 감소한 237억 달러, 하반기에는 8.4% 감소한 223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6.2% 감소한 460억 달러로 전망

1) 주요 업종별 세부 내용문의와 보다 자세한 업종별 전망 자료를 얻고자 하실 경우에는 산업연구원의 업종별 전망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김경유 부연구위원/3299-3125, 조선-홍성인 연구위원/3299-3044, 일반기계-정만태 연구위원/3299-3090, 철강-정은미 연구위원/3299-3064, 석유화학-남장근 연구위원/3299-3294, 섬유-이임자 부연구위원/3299-3108, 가전-이경숙 연구위원/3299-3055, 정보통신기기-김종기 부연구위원 / 3299-3106, 디스플레이-서동혁 연구위원/3299-3032, 반도체-주대영 연구위원/ 3299-3190

- 생산은 충분한 건조물량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사들의 재정악화에 따른 인도 연기가 크게 증가하여 8.0% 감소한 1,445만 CGT에 머물 전망
- 수입은 국내 건조량 감소로 블록 반입규모도 감소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5.8% 감소한 22.3억 달러, 하반기에는 9.0% 감소한 26억 달러로 7.5% 감소한 48.3억 달러로 예상

<일반기계>

- 내수는 노후설비교체 압력증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2.5% 증가 전망
- 수출은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내수부양책에 따른 수출 회복, 미국의 원가절감 노력에 따른 한국산 수요 확대, 중동지역으로 플랜트 기자재 수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3.2%로 큰 폭 증가 전망
- 국내외 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증가에 힘입어 생산은 전년대비 9.1%로 큰 폭 증가 전망
- 수입은 반도체제조장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우리의 경쟁력이 취약한 장비산업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 전망

<철강>

- 건설·자동차·기계산업용 철강수요와 아울러 재고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 철강 내수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5,284만톤 수준으로 전망
- 점진적인 해외 철강 수요 회복과 아울러 중국, 중동을 포함하는 신흥국의 철강 수요증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0년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한 264억 달러 예상

- 내수회복과 신·증설 설비의 가동 정상화로 국내 철강 공급이 늘어나면서 2010년 철강 생산은 6,350만톤대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제가격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수입단가는 다소 높아질 것이나, 국내 공급여력 증가로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열연 및 중후판 수입이 감소하여 철강 수입은 8.2% 증가한 258억 달러 전망

<석유화학>

- 석유화학 내수는 공공부문의 경기부양 조치로 건설부문의 증가가 기대되고, 섬유,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의 전반적 경기호조로 전년대비 5.0% 증가 전망
- 수출은 기저효과와 아울러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중국의 수요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10% 증가할 전망
- 생산은 중동의 플랜트 가동 본격화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가 우려되나, 생산설비의 대폭 확장과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에 전년대비 6.0% 증가할 전망
- 수입은 유가 상승에 따른 나프타 수입가 상승, 중동산 저가제품 수입 증가, 건설부문의 수요 확대 등으로 금액기준으로 14.7% 증가할 전망

<섬유>

- 섬유 내수는 국내 경기회복,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을 위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 가시화, 의류소비 및 섬유소재 수요 확대 등으로 4.5% 증가할 전망

-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대선진국 수출도 호전되면서 섬유수출은 금액기준으로 11.5% 증가할 예상
- 섬유 생산은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상승하고 설비투자가 확대되어 3.2% 증가할 전망
- 섬유 수입은 원화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고가 제품의 수입 회복세, 베트남 등 해외 생산품의 역수입 증가로 금액기준으로 13.4%의 높은 증가율 예상

<가전>

-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호전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가전 내수는 2009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3.8% 증가할 전망
- 남아공 월드컵 특수와 한국 가전업체의 브랜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대외 경제협력 확대, 중국 경제성장 지속 등에 힘입어 2010년 가전수출은 달러화 기준으로 13.4% 증가할 전망
- 달러화 기준 수출은 증가하나, 원화 강세로 인해 원화 환산 수출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내수 증가도 소폭에 머물러 2010년 가전 생산은 2.1% 증가에 그칠 전망
- 원화의 강세 전환으로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고가 및 저가 제품수요 증가, 수출용 부품 수입 증가,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가전 수입은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14.8% 증가할 전망

<정보통신기기>

- 내수는 3G 및 신규 프리미엄폰으로의 전환수요, 스마트폰 시장 확

대, 통신망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장비 수요증가, 그리고 윈도우 7 출시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할 전망

- 수출은 세계 휴대폰시장이 회복되고 세계 3G 및 스마트폰 시장 확대, 윈도우 7 출시에 따른 정보기기 수요증가 및 전년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할 전망
- 생산은 휴대폰의 해외현지 생산 비중 확대 요인이 있으나, 전반적인 내수 및 수출 회복세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7.1% 증가할 전망
- 수입은 경기회복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수요 확대, 휴대폰의 수출 호전에 따른 관련부품 수입 증가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등 해외 휴대폰 및 정보기기업체들의 국내진출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할 전망

<디스플레이>

- 내수는 기저효과와 수요회복이 겹치면서 하반기 윈도7 출시효과에 따른 IT기기 수요 및 가격하락에 따른 LCDTV 수요의 증가가 기대되어 41%의 큰 폭으로 회복될 전망
- 수출은 상반기 가격하락요인 및 전년의 높은 수출 증가율 요인이 있으나, 월드컵 특수 등 세트제품 수요증가가 기대되어 15.1% 증가하는 호조세를 유지할 전망
- 생산은 상반기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특수와 수출호조,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11.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IT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회복세가 나타나고 국내 생산물량 부족분에 대한 수입수요가 발생하여 10.6% 증가할 전망

<반도체>

- 내수는 반도체 응용분야인 DTV, 스마트폰,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 녹색성장산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LED, 태양전지 등의 증가로 7.4% 증가할 전망이다.
- 수출은 '윈도7' 등장으로 데스크탑 교체 및 넷북 구입 바람을 일으켜 17%의 높은 증가를 이룩할 전망이다.
- 생산은 경쟁국의 설비투자 지연으로 신속한 공급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업체의 생산이 6.0%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수입의 경우 디지털가전이나 휴대폰 등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를 국내에서 대부분 생산하지 못하여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므로, 응용제품 수출시장 확대에 힘입어 15.8% 증가를 예상함.

<표 II-5> 2010년 주요 업종별 생산 전망

단위 :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3,827 (-6.4)	1,530 (-24.0)	1,900 (8.6)	3,430 (-10.4)	1,638 (7.1)	2,021 (6.4)	3,659 (6.7)
조선 (만CGT)	1,451 (29.6)	790 (15.0)	780 (2.1)	1,570 (8.2)	733 (-7.2)	712 (-8.7)	1,445 (-8.0)
일반기계 (10억원)	70,950 (4.5)	27,780 (-19.5)	33,567 (-7.9)	61,347 (-13.5)	30,590 (10.1)	36,355 (8.3)	66,945 (9.1)
철강 (천톤)	64,564 (6.6)	25,440 (-24.6)	30,767 (-0.2)	56,207 (-12.9)	31,302 (23.0)	32,217 (4.7)	63,519 (13.0)
석유화학 (천톤)	19,389 (3.7)	10,408 (5.2)	10,017 (5.5)	20,425 (5.3)	11,137 (7.0)	10,518 (5.0)	21,655 (6.0)
섬유 (천톤)	1,870 (-6.8)	899 (-5.0)	938 (1.2)	1,837 (-1.8)	952 (5.9)	944 (0.6)	1,896 (3.2)
가전 (10억원)	31,625 (0.8)	14,720 (-11.1)	13,440 (-10.8)	28,160 (-11.0)	15,040 (2.2)	13,700 (1.9)	28,740 (2.1)
정보통신기기 (10억원)	76,020 (13.7)	33,584 (-10.0)	36,219 (-6.4)	69,803 (-8.2)	35,735 (6.4)	39,055 (7.8)	74,790 (7.1)
디스플레이 (10억원)	36,400 (20.2)	16,925 (-9.2)	20,693 (16.5)	37,618 (3.3)	18,204 (7.6)	23,645 (14.3)	41,849 (11.2)
반도체 (10억원)	35,421 (-9.6)	16,120 (-9.7)	25,260 (33.8)	41,380 (16.8)	17,640 (9.4)	26,230 (3.4)	43,870 (6.0)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II-6> 2010년 주요 업종별 내수 전망

단위 :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대)	1,239 (-4.1)	654 (-1.3)	736 (27.6)	1,390 (12.2)	655 (0.1)	715 (-2.9)	1,370 (-1.4)
조선 (만CGT)	97 (24.3)	53 (10.5)	48 (2.1)	101 (4.1)	49 (-7.5)	44 (-9.4)	93 (-8.4)
일반기계 (10억원)	64,341 (0.5)	26,474 (-13.2)	30,178 (-10.8)	56,652 (-12.0)	30,412 (14.9)	33,340 (10.5)	63,752 (12.5)
철강 (천톤)	58,774 (9.3)	19,992 (-35.2)	24,950 (-10.6)	44,942 (-23.5)	25,971 (29.9)	26,873 (7.7)	52,843 (17.6)
석유화학 (천톤)	9,271 (-2.6)	4,635 (-4.4)	4,681 (5.8)	9,316 (0.5)	4,890 (5.5)	4,892 (4.5)	9,782 (5.0)
섬유 (천톤)	1,466 (-5.3)	696 (-4.8)	752 (2.0)	1,448 (-1.2)	756 (8.6)	757 (0.7)	1,513 (4.5)
가전 (10억원)	22,862 (-1.1)	10,914 (-9.8)	10,042 (-6.7)	20,956 (-8.3)	11,322 (3.7)	10,437 (3.9)	21,759 (3.8)
정보통신기기 (10억원)	42,114 (6.3)	16,466 (-17.6)	19,692 (-11.1)	36,158 (-14.1)	19,421 (17.9)	22,206 (12.8)	41,627 (15.1)
디스플레이 (10억원)	19,715 (14.2)	4,842 (-56.5)	5,313 (-38.5)	10,155 (-48.5)	6,715 (38.7)	7,599 (43.0)	14,314 (41.0)
반도체 (10억원)	34,566 (9.5)	16,330 (-3.9)	19,365 (10.2)	35,695 (3.3)	16,935 (3.7)	21,415 (10.6)	38,350 (7.4)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섬유는 섬유사 기준으로 실질기준이고, 나머지는 명목기준

<표 II-7>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48,982 (-1.5)	15,380 (-42.4)	19,797 (-11.2)	35,177 (-28.2)	17,838 (16.0)	23,607 (19.2)	41,445 (17.8)
조선	43,157 (55.4)	24,638 (30.4)	24,388 (0.5)	49,026 (13.6)	23,667 (-3.9)	22,327 (-8.4)	45,994 (-6.2)
일반기계	29,462 (16.1)	10,814 (-30.3)	13,492 (-3.3)	24,306 (-17.5)	12,480 (15.4)	15,044 (11.5)	27,524 (13.2)
철강	29,865 (29.7)	11,383 (-19.1)	11,741 (-25.7)	23,124 (-22.6)	12,807 (12.5)	13,571 (15.6)	26,378 (14.1)
석유화학	32,124 (11.4)	12,209 (-27.8)	13,971 (-8.2)	26,180 (-18.5)	13,857 (13.5)	14,943 (7.0)	28,800 (10.0)
섬유	13,317 (-1.0)	5,447 (-19.3)	5,844 (-11.0)	11,291 (-15.2)	6,115 (12.3)	6,474 (10.8)	12,589 (11.5)
가전	12,896 (-4.0)	4,650 (-34.6)	4,810 (-16.8)	9,460 (-26.6)	5,480 (17.8)	5,250 (9.1)	10,730 (13.4)
정보통신기기	45,737 (5.2)	18,503 (-21.4)	20,254 (-8.8)	38,757 (-15.3)	21,018 (13.6)	23,281 (14.9)	44,299 (14.3)
디스플레이	18,397 (10.0)	10,460 (12.7)	14,684 (61.0)	25,144 (36.7)	11,822 (13.0)	17,116 (16.6)	28,938 (15.1)
반도체	32,793 (-16.0)	11,875 (-32.4)	19,475 (27.9)	31,350 (-4.4)	15,560 (31.0)	21,120 (8.4)	36,680 (17.0)
10대 업종 합계	306,730 (9.2)	125,359 (-19.8)	148,456 (-1.3)	273,815 (-10.7)	140,644 (12.2)	162,733 (9.6)	303,377 (10.8)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표 II-8> 2010년 주요 업종별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08	2009			2010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7,645 (6.7)	2,364 (-43.6)	3,113 (-9.8)	5,477 (-28.4)	2,921 (23.6)	3,329 (6.9)	6,250 (14.1)
조선	5,327 (69.2)	2,365 (-2.6)	2,855 (-1.6)	5,220 (-0.2)	2,228 (-5.8)	2,598 (-9.0)	4,826 (-7.6)
일반기계	23,470 (10.6)	9,792 (-17.6)	10,840 (-6.4)	20,632 (-12.1)	11,408 (16.5)	12,303 (13.5)	23,711 (14.9)
철강	41,411 (51.1)	11,002 (-44.0)	12,851 (-41.0)	23,853 (-42.4)	12,874 (17.0)	12,942 (0.7)	25,816 (8.2)
석유화학	12,319 (6.0)	3,898 (-40.6)	4,762 (-17.3)	8,660 (-29.7)	4,600 (18.0)	5,333 (12.0)	9,933 (14.7)
섬유	8,800 (-1.2)	3,162 (-27.5)	3,804 (-14.3)	6,956 (-21.0)	3,607 (14.1)	4,283 (12.6)	7,890 (13.4)
가전	4,848 (6.6)	1,833 (-29.7)	1,990 (-11.2)	3,823 (-21.1)	2,190 (19.5)	2,200 (10.6)	4,390 (14.8)
정보통신기기	14,997 (6.2)	5,832 (-25.4)	6,598 (-8.1)	12,430 (-17.1)	6,581 (12.8)	7,570 (14.7)	14,151 (13.8)
디스플레이	3,270 (22.2)	1,516 (-8.9)	1,897 (18.0)	3,413 (4.4)	1,655 (9.2)	2,120 (11.8)	3,775 (10.6)
반도체	32,018 (3.9)	12,039 (-28.2)	14,862 (-2.5)	26,901 (-16.0)	14,410 (19.7)	16,740 (12.6)	31,150 (15.8)
10대 업종 합계	154,105 (17.1)	53,803 (-31.0)	63,572 (-16.6)	117,365 (-23.8)	62,474 (16.1)	69,418 (9.2)	131,892 (12.4)

주 : 1) ()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